

우아한 거짓말

감독 이 한

원작 김려령

각본 이숙연, 김동우

제작 유비유필름, 무비락

1. 서울 전경. 서진 여중고. 점심시간

서울의 어느 동네를 다 보여주는 큰 전경.

꽤 개인 하늘과 함께 평화로워 보인다.

여중과 여고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서진 여중고의 전경.

여중의 옥상, 바라보듯 운동장을 보면 햇살과 함께 활기찬 소음과 분위기.

운동장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건물과 건물사이 좁고 어두운 공간이 보인다.

운동장의 밝음과 대비되어 잘 보이지 않는 좁은 공간에 조금 더 다가가면

그 속에서 감자칩 봉지 하나가 바람에 휩 하고 튀어 나온다.

그 어둠속에서 소녀가 걸어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무엇에 쫓기듯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소녀의 뒷모습.

뛰기 시작하다 손에 들고 있는 보조가방에서 붉은 털실이 떨어지자

주저앉아 정신없이 줍다가 동작이 멈춘다.

생기 넘치는 아이들 속 혼자인 중학교 일학년 소녀 천지의 구부정 앉은 먼 모습.

서서히 일어나는 천지에게는 운동장의 활기찬 소음. 햇살. 생기 넘치는 운동장. 싱그러움.

그 모든 것이 다 생경하게 느껴진다.

2. 대형마켓. 오후

두부코너 시식대 앞의 현숙(40대 초반, 천지, 만지의 엄마)이

두부를 계란에 묻혀 구우며 전화중이다.

천지 (전화소리) ... 엄마 ...

현숙 (정신이 없다. 대강) 어. 딸. 왜?

천지 (소리) 나. 모자 떠 줘... 내 털실로...

현숙 (앞에 시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구워야 한다.) 아침엔 앰피쓰리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여름 다 됐는데 웬 털모자.

천지 (소리) 앰피쓰린 됐어.

손님 찌개용으로 하나요.

현숙 천지야 엄마 바빠. 밥 챙겨먹고 집에 가서 얘기해.
(핸드폰을 끄고 두부를 손님에게 준다.)

손님이 가고 핸드폰 보는 현숙, 석연찮은 지 옆에 만두아줌마에게

현숙 여기 5분만.

만두 (끄덕하며 만두 하나를 입에 물려준다.)
현숙 (냠냠 하며 매대를 떠나려다 감독관인 마트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개구진 표정으로) 쉬... 쉬 마려.
직원 (에프엠 인 듯한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 왜 저런 말을 쓰지 하는 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네. 빨리 다녀오세요.

쉬 마려운 듯 한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는 현숙.

3. 학교 운동장. 오후. 하교길

흰 양말, 무릎을 가린 범생 스타일로 교복을 입은 여고 일년생 만지가
유난히 짧은 치마에 두툼한 다리의 친구인 미란, 배가 고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통통 지민과 함께 하교를 하고 있다.

미란 만지야. 거 어케 치마 좀 만지작 만지작 해서 좀 올려 봐.
무릎이라도 보이게 답답해 보이거등.
만지 (터질듯 붙은 미란의 치마를 보며) 참 치마가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
지민 (허기에 잔뜩 짜증) 아. 시끄럽고 조스, 국대, 아딸 중에 골라.
만지 몇 일 간다 했다. 니가 다이어트는 무슨...

그들의 배경으로 약간 까칠해 보이는 여교사 이정애(천지담임. 20대 중반,)가 못마땅한 표정의
여중생 둘을 화해~ 하고 외치며 포옹을 시키고 있다.

미란 거 중딩들 귀엽네. 저 쌤. 여자들끼리 끌어안는 거 디게 좋아해.
변태 같어.
만지 초짜 티 벳을 때도 되지 않았나?
순진한 건지 만사 귀찮은 건지. 저런다구 화해가 돼?
미란 저 쌤 미라랑 천지 담임이다.
만지 그래? 미라랑 천지가 한 반이야?
미란 천지가 얘기 안 해? 미라는 천지 얘기 가끔 하던데.
만지 뭐래?
미란 뭐 강... 친하진 않은가봐.
지민 아. 어디로 갈 꺼냐고?
미란 아... 딸딸딸... 떡볶이!!!
지민 오케. (걸음이 빨라지고)

운동장을 빨리 가로지르며 신나서 가는 둘. 뭐가 좋은지 까르르 웃으면서.
천천히 따라가던 만지, 멈춰 선다. 핸드폰 받는다.

만지 왜.

현숙 (소리) 천지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집이니?

만지 (통명. 짜증) 나 학교야.

4. 마트. 전자 제품코너

현숙 (엠펙쓰리 플레이어를 고르며) 천지가 사달란 게

엠펙쓰리플레이어지? 뭐가 이렇게 많냐?

만지 (소리) 사지마. 전세보증금 모아야 한다며

현숙 보증금에 그거 하나 더 산다고 굶어죽기야 하겠어? 니가 집에 가서 물어봐.

천지 목소리가 좀 걸려. 생전 뭐 사달라는 애두 아니잖아.

5. 서진 여중고

만지 몰라. 나 학원 가야돼. (핸드폰 끊어버린다)

지민과 미란. 신나서 교문 밖으로 나간다.

만지 (짜증)애는 왜! 아..

뒷골 땀겨...완전 피곤한 여자들... (하더니 전화 건다)

핸드폰 액정에 천지라고 뜬다.

6. 다세대연립. 해질 무렵

책상 위 붉은 목도리를 집어 드는 천지의 손.

핸드폰이 울리자 가만히 바라보는 천지의 뒷모습.

텅 빈 집에 핸드폰 소리만이 울린다.

조금 열려있던 천지의 방문이 조용히 닫힌다.

계속 울리던 핸드폰 벨이 멈춘다.

집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벨이 멈춘다.
정적.

만지 (소리) 천지가 죽었다.

7. 금강. 낮

햇빛에 반짝 빛나는 강물위로 하얀 골분이 흘러 내려간다. 활짝 웃고 있는 천지의 사진도...
하얀 소복을 입고 골분 통을 앞에 둔 채 쪼그려 앉아 있는 현숙.
서서 현숙을 보고 있는 만지. 냇이 나가 있는 두 사람이 한 동안 보이고.

현숙 천지야, 아빠가 금방 마중 나올 거야.

물 위를 떠내려가는 천지의 사진을 바라보는 현숙과 만지.

현숙 웬수야. 애들 이름이 크면 일찍 간다 그랬잖아!
바득바득 우겨서 짓더니. 이제 좋냐? 데려가려면 곱게나 데려가든가...
낙시꾼 (지나가다가) 거 다 끝났으면 얼렁 가요. 여 하도 골분 버리는 사람이 많아
단속이 심해. 벌금 물수도 있어.
현숙 내 새끼 뭐가 드럽다구 벌금을 물어!
낙시꾼 새끼를 보내는구먼..새끼를... (쫓쫓. 상류쪽으로 간다)

멀리서 공무원 차림의 남자가 서류철을 옆에 끼고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현숙 (서두른다) 만지야. 가자.
만지 (소복 끝에 발이 엉킨다. 넘어질 뻔) 천천히 좀 가자
현숙 벌금 문대잖어!
만지 딸 보내놓고 벌금 물까 도망 가냐... 좀 그렇다..
현숙 산다는 게 . 그렇게 좀스럽고 치사한 거야.
(허둥지둥 자리 뜨더니 돌아보며 그러한 눈으로...)
천지아빠. 천지 만나면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마. 그냥 꼭 안아줘.
아오, 나쁜 년. 잘 가라, 이 년아.

그런 현숙을 바라보는 만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숙의 얼굴. 강 위로 천천히
떠내려가는 천지의 사진. 그 위로 들리는 만지의 소리

만지 (소리) 엄마는 남편을 보낸 지 9년 만에 어린 딸까지 보내고 말았다.

8. 다세대연립. 석양 (몽타주)

사포질 하다가 만 책상 위 천지의 핸드폰.

의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붉은 실로 뜬 머플러.

만지 (소리)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에 책상 리폼 한다면

천지책상 옆에 잡동사니 가득한 만지책상 위

대바늘, 코바늘. 스킬바늘. 붉은 털실뭉치. 핑킹 가위 등.

만지 (소리) 틈만 나면 자기 책상을 비워내고 내 책상에 쌓아뒀던 동생이
책상을 깨끗이 비우기만 한 채……혼자 목숨을 끊었다.

천지가방. 교복. 천지의 핸드폰. 일기장. 사물함.

만지 (소리)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털실뭉치 위로 석양빛이 천천히 와 닿는다.

그 화면 여백 위로 타이틀 뜨고 화면 서서히 어두워진다.

<우아한 거짓말>

9. 다세대연립 앞 용달차안. 낮

이삿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트럭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현숙과 만지.

현숙 아무리 애가 죽으면 봉분대신 돌을 쌓는 대지만
그렇게 험하게들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나가라면 누가 안 나가?!
어디서 남에 귀한 딸을 잡귀 취급해. 망할 여편네. 잘 살아라!!!
(운전기사에게) 전속력. 빨리 가요 아저씨.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트럭.

만지 버릴 거 여기다 놓고 가지.
 현숙 다 가져가라잖아.
 만지 ...
 현숙 ...
 현숙 (현숙과 만지 좌석이 좁아 가까이 붙어있다. 불쑥 키득)
 만지 ?
 현숙 너랑 나랑 둘만 남으니..무지 어색하다.
 만지 (고개 돌린다. 땀 쪽 본다)
 현숙 (히죽)

울리는 현숙의 핸드폰 액정. “쌍노무 새끼” 핸드폰을 끄는 현숙.
 슬쩍 보는 만지.

10. 현숙집. 초원 아파트. 낮

재개발 임박한 듯 한 아파트.
 그중 한 집. 아홉 평짜리 좁은 실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만지 구석구석 사생활이라곤 있을 수가 없네.
 현숙 옛날 버스터미널 화장실 같지 않냐?
 만지 계약할 때 안 들어 와 봤어?
 현숙 어. 초원아파트네. 하고 바로 계약했지.
 만지 (한숨) 후...

사이.

본격적으로 복도에 쌓아둔 짐을 들이는 만지와 현숙.

현숙 (들여놓은 만지 책상을 보고) 니 책상은 버려야겠다. 좁아서 안 되겠어.
 만지 나 공부 하지 말라구?
 현숙 얹은뱅이 책상으로 작은 거 마트에서 하나 사올게.
 만지 그냥 천지 걸루 쓸게
 현숙 ...
 만지 팬찮아.
 현숙 그래.

만지 (가슴기 들고) 이걸 베란다에 둔다.
 현숙 (베란다로 먼저 간다) 먼저 치우고 놓자. 쿵쿵..이게 뭘 냄새래..
 만지 잘 찾아봐. 숨은 변기가 있을지두 몰라
 현숙 하여간 말은 (베란다로 들어가 여기저기 살펴본다. 베란다 뒤에 곰팡이 낀 종이상자가 보인다.) 만지야! 쓰레기봉투 가져와.

만지. 군데군데 쌓여 있는 세간들 사이에서 쓰레기봉투 찾는다. 이때, 들려오는 현숙의 비명소리. “엄마야!”. 마치 육상 경기의 허들을 뛰어 넘듯 세간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어 복도로 달려가는 현숙. 영문을 모른 채, 현숙의 뒤를 따라 세간들을 뛰어넘는 만지. 복도에 멈춰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숙과 만지.

만지 뭐야?
 현숙 쥐! 쥐! 드글 드글. 쥐!
 만지 (같이 놀래서) 으악! 어떻게 해. 빨리 잡아.
 현숙 으악! 니가 해!
 만지 싫어, 악!

현숙과 만지가 경쟁하듯 소리를 지른다. 문득, 두 사람 앞에 서는 한 남자. 정리 안 된 수염, 바짝 마른 몸. 긴 생머리에 오대오 가르마를 한 남자(이하 오대오). 범상치 않은 그 외모에 모녀, 더 놀란다.

만지 으악! 누..누구세요?
 오대오 (좀 어눌)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소리가 나서...
 만지 아저씨 혹시 락커예요?
 오대오 아뇨, 그냥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여자처럼 습관인 듯 옆으로 흔들자 머리가 획 하고 날린다.(느린동작)

만지 (자세히 보자 웃겨서) 팝..
 현숙 어쩔 머리가 딱 오대오야. 자대고 켜어요?
 오대오 (진지. 무표정) 균형감 있지 않나요?
 현숙 무서워. 목젖 보니 남자네.
 오대오 ... 무슨 문제라도.
 현숙 쥐..
 오대오 아. 쥐... 쥐 많죠. 이 아파트.

현숙 저기. 베란다. 상자에. 쥐가 드글 드글 이야.
만지 (해달라는 뉘앙스로) 119에 신고하면 잡아줄라나?
오대오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만지 (냉큼 쓰레기봉투 넘긴다)
현숙 쓰레받기는 베란다에 있어요.
오대오 (베란다 쪽으로 가면서)어떤 상자요?
현숙 보일러 배관 뒤에... 곰팡이 낀 거요.
오대오 알겠습니다!(베란다로 가더니)일단 문은 닫겠습니다.
 쥐가 마루로 뛰쳐나갈 수 있으니까..
만지 (냉큼 닫는다)

그리고 유리문으로 비치는 오대오의 동작.
거기에 맞춰 현숙과 만지의 표정도 왔다 갔다 한다.

현숙 야, 웬지 들킵하지 않냐?

순간, ‘악’ 비명과 함께 뛰어나오는 오대오.
놀란 현숙과 만지는 마루에서 복도까지 죽어라 뱉뿔다.
달려 나온 오대오를 보니...빈손이다.

오대오 (만지에게 쓰레기봉투 넘겨주며) 너무 커요. 사이즈가... 아우...
 죄송합니다.
만지 (뭐야?)
오대오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헛하니 남아버린 만지와 엄마.

만지 뭐야.. 폼만 잡다가.
현숙 담에 눈에 띄어봐. 머리를 틀어서 비너를 확 쫓아버린다
 (오대오 집 향해) 쥐 잡다가 베란다 문 뿌시겠다! 아.. 정말..
만지 경비아저씨라도 부를까
현숙 그냥 오라면 오겠니...담배라도 한 갑 쥐어 쥐야지. 기다려봐.

사이.

집에서 나오는 경비아저씨. 임씨.
새끼 쥐가 든 검정비닐을 들고 나온다.
비닐이 꿈틀꿈틀. 만지가 소스라쳐한다.

임씨 큰 놈은 어딴는지 안 뵈.
현숙 새끼만 잡으면 뭐해요.
임씨 나오문 또 봅시다.

모른 척하고 내려가는 임씨.

현숙 만원이나 받아 먹구! 어미 쥐는 어찌라구!
 가만있는 새끼 쥐들이야 나두 잡았지!
만지 그럼 아직도 쥐 있는 거야? 아, 짹짹해.
현숙 일단 에프킬라 라도 뿌릴까?
만지 그게 쥐도 죽여?
현숙 쥐 몸에 있는 벼룩은 죽이겠지.
만지 어쩐지 나 곧 가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현숙 난 쉬는 날 같은 거 자진해서 반납할 것 같아.
 (한 쪽에 놓인 책상 상판이 올려진 의자를 밀며)넌 저거 가져 와.

만지가 서랍장을 밀며 현숙을 따라간다. 다시 열리는 오대오집.

오대오 (목장갑 끼면서) 다른 걸루...도와드리겠습니다.
현숙 됐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머쓱하게 복도 옆으로 비켜서는 오대오. 현숙이 의자를 밀고 간다.

만지 저기..냉장고 옆에 유리 버릴 건데요.
오대오 (안으로 들어간다)
현숙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어가래?!
만지 가져갈 게 뭐 있다구.
현숙 인상이 좀 신뢰가 안 가잖아.

이때, 유리판을 들고 나오는 오대오.

오대오 가죠.

현숙 (말투를 따라하며) 그러죠.

현숙이 의자를 밀며 앞장서서 간다. 그 뒤를 따르는 만지와 오대오.

오대오 학생 이름은 뭐야?

만지 이만지요

오대오 놀러먹자면 한없이 놀러먹을 수 있는 이름 이네

만지 아저씨 성함이..?

오대오 추상박.

‘네?’하면서 뒤돌아보는 만지. 유리에 얼굴을 붙이고 오는 오대오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

만지 깜짝이야. 얼굴을 왜 그렇게 유리에 짝 붙이구.. 아 놀래.

오대오 얼굴에 유리가 달라붙어서 덜 미끄럽거든

만지 추상박? 추상 PARK이요? 아님 추. 상박.

오대오 추우……상. 박.

11. 계단. 경비실 앞. 낮

내려놓은 짐 앞에 대충 걸터앉은 만지.

임씨 유리는 공짜. 널빤지는 삼천원. 서랍장 삼천원.

모두 육천원 주쇼.

현숙 널빤지랑 서랍이랑 세트에 하나루 쳐야죠.

임씨 크기가 문제지. 크기. 세트래두 그 가격입니다.

오대오 영감님. 전에 나한테 이 서랍장 만한 거 오천원 받았잖아요

현숙 (오대오 노려본다)

임씨 것 봐요 아줌마. 이게 내 맘대로가 아니라니까 정해진 법이 있는 거지.

현숙 (지갑 열면서 궁시렁) 오천원.

임씨 아주머니..정말..

지친 만지. 그 때 스 지나가는 여학생(화연, 중학교 일학년 여자)을 본다.

만지 재… 천지친구 같은데

임씨 (지나가는 거 본다) 보신각 딸. 화연이네.
 현숙 (멍~갑자기) 그럼 그렇게 하고
 임씨 뭘 그렇게 합니까?
 현숙 (육천원 준다)
 임씨 (방긋)
 만지 (엄마 본다. 이상하다. 왜 저러지?)
 현숙 (뭔가 과장스럽게) 아 배고프다. 밥 먹자.

화연을 쫓아가듯 발걸음을 옮기는 현숙. 따라가는 만지.

오대오 영감님 진지하게 얘기 좀 하시죠.
 임씨 뭘?
 오대오 아니 어떤 때는 삼천원이고 어떤 때는 오천원이고 이러면 안되죠.
 임씨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 그때하고 같어?
 오대오 보름전이에요.
 임씨 찻... (천원을 내밀며) 그럼 이 정도로 합의 보자구. 응?
 오대오 (돈을 받으며) 에이.

12. 중국집 보신각 앞. 초원아파트상가. 낮

가방을 든 채 젖은 손을 공기 중에 휘휘 말리며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화연,
 상가 복도로 걸어오는 현숙과 만지를 보고 깜짝 놀라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간다.
 화장실 객실 안으로 숨어 들어간 화연, 문을 잠그고 놀란 마음을 쓸어내린다.

13. 중국집. 보신각

배달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는 화연모(40대 중반).
 자리에 앉은 현숙은 내부를 꼼꼼히 쳐다본다.
 화연모와 눈이 마주친다. 당황한 얼굴의 화연모.

현숙 여기 짜장면 둘 하구...탕수육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일루 이사 왔어요. 종종 보겠네요.
 만지 걸 다 어떻게 먹어. 셋이 먹을 때나 그렇게 먹지..
 현숙 먹어. 먹을 수 있어. 세 명 분으루 힘차게 살꺼니까. 잘 먹자.
 만지 탕수육 빼줘요.

현숙 넣어! 넣어요!

화연모 (주방에) 짜 둘 탕 소 하나. (단무지와 양파를 가져다주고 말없이 간다.)

현숙 (언제 소리 질렀냐는 듯 단무지 아삭)이사할 땐 역시 짜장이야..

만지 (꼭 참는다)이사 지겨워. 엄만 왜 여태 집도 못 샀냐.

현숙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집값이 저기 도망가 있지
 니들은 좋은 성적 받아보겠다고 학원은 꼬박꼬박 다니지

화연모가 눈을 안 마주치려는 듯 시선을 피하며 음식을 놓는다.

만지 알았습니다. 드십시오.

현숙 니가 공부 잘해서 딸년 때문에 호강 좀 해보자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데..니가 확 뒤집어

만지 그 자식이 뭘 복이 있어 뒤집습니까.

현숙 따박 따박 ...말대꾸예. 좋아. 너랑 나랑 대화두 많구.
 좋네.. 힘차게 살어. 아주 좋아.

만지 엄마야 말루 힘차게 힘차게 외치면서 오바 좀 하지 마. 더 불편해.
 하던대루 하자.

현숙 (자장면 나오자 북북 동작 크게 비비며)먹자.

만지 그러지도 좀 마. 그냥 비비면 되지...뭘 그걸 요란하게 휘휘 저으며 비벼?

현숙 (휘~휘. 오바하며) 딸년 잔소리. 좋네. 힘이 나.

만지

현숙에게 전화가 온다. 발신자 보더니 안 받는다.

끊어지고 울리고 끊어지고 울리고. 버럭 받는 현숙.

현숙 (조금 듣다가)말은 바로 해. 이 등신아. 내가 너 백수라서 끝냈냐구.
 요즘 사회가 실업자 백만 어찌구 하면서 측은해 해주니까
 아주 지가 살판나서 물어 가구 자빠졌네.
 넌 원래 일하기 싫어하는 놈이잖아. 기다리지 마. 이 미친..(하려는데)

만지 (듣다가 인상 팍 쓴다. 아...창피해.)

현숙 (만지 표정 살피더니. 목소리 낮춰서) 미친 새끼.
 이사하는데 너한테 왜 보고를 하냐. 어?
 ...뭘? (다시 버럭) 거기서 왜 기다려?

만지 (인상 팍 쓴다)

현숙 (다시 조용) 지저분하게 굴지 말구 니 새끼들이나 잘 챙겨

(듣다가..) 뭐..? ...천지엄마...(진지)내 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확 끊어버린다)

만지 (짜장면만 열심히 먹는다)

현숙 (만지 눈치 보더니) 천지 일 있기 전에 끝났었어.

만지 살던 대루 샅시다.(짜증. 탕수육 저으며) 누구 맘대루 소스를 뒤엎은거야!

현숙 (곱씹는다)뭐..? 위로.. 위로해 준다구...(분노가 인다)

만지 위로 같은 단어 내 앞에서 쓰지 마.

현숙 내 말이. 못 참아. (벌떡 일어나더니 나간다) 먹고 먼저 집에 가 있어.
 금방 갈게.

만지 ?!

14. 초원 아파트 앞. 저녁

전봇대 앞에 기대서 있는 곽만호(40대 중반),
 한눈에도 허름하고 궁핍한 옷차림에 인상만 선하다.
 품 잡고 서 있다가 현숙이 나타나자 두 팔 활짝 벌려 선한 미소 지으며

만호 (인자)얼마나 힘드셨습니까..세상에. 이런.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니까...
 그래 소중한 사람들 아끼고 살자. 천지엄마..응?

현숙 (보자마자 만호를 때린다) 천지이름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두 번 다시 천지 엄마라구 불렀단 봐.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천지엄마 부르지 마 (때리고 때리고)
 으악~(소리 지른다)

15. 현숙집. 초원 아파트. 밤

반쯤 정리된 세간살이. 서로 등 돌리고 자고 있는 현숙과 만지. 쥐소리가 들린다.

현숙 베란다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만지 (뜬 눈이다)응

현숙 쥐...움직인다

만지 응

현숙 ...노래한다.

만지 ...

현숙 ... 절규 하는 게 아닐까? ... 아까 자식 잃었다고 복수를 다짐하는 절규...

만지 (현숙의 등을 본다)...

현숙 잘 자라.

만지 응.

현숙 (습관처럼 또) 코. 잘자렴 ...

만지 ... 천지... 왜 그랬을까?

현숙 (등) ...

만지 엄만 뭐 알아?

현숙 ... (작게 코 고는 소리)

만지 ...

16. 서진여중. 2층. 복도. 아침

조용히 복도를 걸어오는 수경. (한 눈에 봐도 노는 아이) 사물함 앞으로 가서 ‘이천지’ 이름을 발견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물함을 열어보지만 잠겨있다. 당황하는 수경.

이선생 박수경.

수경 (놀라서 뒤돌아본다)

이선생 ... 뭐야. 너.

수경 (가방에서 체육복을 꺼낸다)이거. 이천지한테 빌린 거예요.

이선생 언제 빌린 건데.

수경 ... 세 달쯤 됐나?

이선생 세달?

수경 달란 말이 없어서..

이선생 (버럭) 안달라면 안줘! 썼음 바로바로 갖다 줘야지!

수경 필요하면 지가 찾으러 올 줄 알았다구요!

이선생 니가 빌려가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

아하. 노는 애님이시다. 돌려주는 것 만해도 감사할 줄 알아라?

구타 빨에 욕 빨이 언제까지 먹힐 것 같냐? 딱 열아홉까지야.

그 다음 세상 나가봐.

때린 애랑 맞은 애랑. 누가 더 쪽팔릴 거 같애? 증인들이 수두룩한데

네 행동 기억하는 애가 전교생이야!

수경 (어머?) 체육복밖에 안 빌렸다고요!

이선생 그랬겠지! 빌려주는 천지는. 안 빌려주면 뭘 일 날까봐 벌벌 떨었을 천지는!

수경 (혼자말로) 아, 씨발! 왜 죽어서는.

이선생 뭐?

하는데 수경으로 날라 오는 가방. 수경, 가방 맞고 쓰러진다. 만지다.

17. 상담실. 오전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천지 담임 이선생, 만지, 수경.

수경 화연이가 나랑 이천지 체격이 비슷하다고 개꺼 갖다 준 거라고요.

이선생 김화연? 너 김화연이랑 친하니?

만지 (수경을 본다)

수경 생일 초대 받은 뒤로 친해졌어요.

이선생 천지는..

수경 갠 제 스타일 아네요(하다가 만지 눈치 본다)

이천지는 화연이랑 단짝이잖아요... 화연이만 알지 천진 잘 몰라요

만지 (본다)

수경 아까 언니 앞에서 이천지 욕한 건 죄송합니다.

이선생 이것들은 선생님 앞에선 욕찌거리구 선배는 무서워 하구..

사이.

상담실을 나서는 만지와 수경.

만지 (조용히) 사과는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거 입고 운동장 열 바퀴 돌아.

수경 (뜨악) 이거 동복인데..

만지 사건경위에 박수경이 괴롭혀서 천지 죽었습니다. 한 줄이면
넌 소년원이야.

수경 (휘청)

18. 식당. 서진여고. 낮

음악이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여고식당.

한쪽에 떨어져 있는 만지에게 두 개의 식판을 들고 다가가는 미란.

미란 니가 좋아하는 밥.

만지 (본다. 김가루 부셔 넣은 멸치 양념 밥이 수북하다)

미란 아줌마가 남은 거 주먹밥해서 가져가랬으니까.
가져가서(동생 쥐..하려다가)...너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만지 (본다)

미란 좀 찾아봤어? 일기나.. 뭐. 가방. 교복주머니.
아님... 니네 집 비밀장소 같은 데 없을까?

만지 뭐 유언 갓구 숨바꼭질 하나? 있음.. 눈에 확 띄는 데 뒀겠지.
이건...죽어서두 내성적이구 지랄이야.

미란 이 밥. 예전에. 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밥으루 주먹밥 만들어서 올 엄마 아플 때 갖다드렸었거든
오물오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딸.. 학교서
잘 먹어서 좋네...’이러드라.

만지 (티껍게 본다) 니 엄마 천지. 함 겨뤄 보자는 거야 뭐야..

미란 그게 내가 정한 올 엄마 유언이야.

만지 ...

미란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랑 한다 내 딸아..’이런 말 당근 없었구.
뭐든...하나 있어야 건디겠더라. 그래서 젤 이쁘게 말한 걸루 정했다구.
‘잘 먹어서 참 좋다’ 이거야. 올 엄마 유언.
천지가 젤 예쁘게 해준 말루 유언 정해. 니 맘이라두 편하게.

만지 (울컥. 하지만)미친...혼자 공주놀이야. 너 김화연이라구 들어봤어?

미란 미라가 개 욕 무지 하던데

만지 왜? 천지 단짝이라든데.

미란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은근히 갈렸나봐.
잘은 모르겠는데 화연이 때문이라구 미라가 흥분하더라.

만지 뭐가 개 때문이야

미란 천지 죽은 거. (말해 놓구) 아냐. 미안.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데.

만지 ...

미란 왜 좀 알아봐줄까?

만지 알면?

미란 하긴...

하는데 와락 달려드는 지민. 등 뒤에서 만지를 안는다.

만지 (힘들다)그만해!

지민 (그 큰 덩치로 등에 얼굴 파묻고 절대로 안 떨어진다) 싫어. 우리 만지..
우리 만지..

만지 (떨려다가 그냥 둔다.) 거기에 ‘힘내’그딴 말 갖다 붙이기만 해봐..
지민 사랑해...사랑해...사랑해
미란 (창 밖 보더니) 오마. 쟀 뭐니?

창밖으로 천지 체육복 입고 운동장 도는 수경이가 보인다. 연신 땀을 흘리며
하늘 향해 ‘미안해’외치면서. 만지는 지민이 떼어내며 꾸역꾸역 밥 삼킨다.

19. 양호실. 서진여고. 낮

생각에 잠긴 만지위로 소리.

미란 (소리) 잘은 모르겠는데 화연이 때문이라고 미라가 흥분하더라.
양호 많이 체했다..

양호선생님이 만지의 손을 주무르며 팔을 끌어내려준다.
언제 손가락을 뺐는지 아픈지도 몰랐다. 만지의 검지에서 검정 피가 난다.

20. 천지교실. 서진여중. 낮

국화꽃이 놓여있는 천지자리.
주변의 아이들. 일 분단 맨 뒷자리를 보며 조용하게 수근 거린다.
‘김화연 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완전 쫓아서 자는 척 하는 거 봐라’
‘유서가 없다는데. 화연이 죽다 살아났지’
‘유서에 화연이름 있음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부터는 구속이래. 구속’
맨 뒷자리에 자는 척 엎어져있는 여학생(화연). 다 듣는 듯. 하지만 일부러 꿈쩍도 않는다.

21. 복도. 서진여중. 낮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미라. (미란 동생)
두리번거리며 고등학교 교복의 만지가 나타나자. 얼른 손든다.

미라 언니..여기요.
만지 니가 미란이 동생이구나.
미라 (꾸벅) 안녕하세요.
만지 (미라를 본다. 천지와 똑같은 교복과 똑같은 명찰색깔)

22. 교실. 서진여중. 낮

뒷문이 열린다. 만지와 미라가 들어온다.
조용. 흥해 갈라지듯 학생들 갈라진다.
국화가 있는 천지 자리로 곧장 가는 만지.
만지 동작 하나하나에 숨죽이고 보는 학생들.
국화꽃 바구니를 챙긴다.

만지 (국화 향에) 냄새 한번 더럽게 진하네.
화연 (고개 들며) 아.. 잘 잤다.

아이들 시선 화연에게 쏟아진다.
화연, 국화 들고 서 있는 만지와 눈이 마주친다.

화연 안녕하세요.
만지 어. 화연아.

23. 서진여중고. 학교 앞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여중생들을 바라보고 서있는 만지.

24. 학교 앞. 방과 후. <과거>

학교에서 나오는 천지가 보인다.
그 앞으로 뛰어와 생글거리는 얼굴로 서는 화연

화연 같이 가자.. 오랜만에.
천지 (지나치려는데)
화연 쉬는 시간마다 뿡~하고 사라지드라...나 몰래.
천지 초딩이니? 화장실을 같이 다니게.
만지 (마침 그 앞 지나가다가) 천지야.
천지 (본다.) 어... 언니.
화연 (갑자기 표정 확 바꾸며) 천지 언니세요! 안녕하세요. 전 천지친구 화연이에요
만지 (작고 둥근 화연과 크고 가는 천지 보더니) 니네 둘 되게 안 어울린다.

화연 (하하) 정반대끼리 만나야 친하대요. 언니! 이렇게 만난 것두 인연인데 돈까스 사주세요!

천지 (언니 보며. 단호) 안 사줘두 돼. 난 집에 가서 먹으면 돼.

만지 (분식점 가판대 앞으로 가더니) 돈까스는 돈이 안되구. 아줌마 여기 떡볶이 2인분 만요. 들어가자. (분식집으로 들어간다.)

화연 (환한 미소) 감사합니다. (전화가 온다.) 잠깐만요.

천지 (얼굴이 굳은 채 만지를 따라 들어간다.)

화연 (분식점 밖에서 짜증내며 엄마의 전화를 받는 화연) 지금 가. 학원 간다니까. (하다가 하교하는 친구들을 보자 생글거리며 분식집 안을 가리키며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천지 (떡볶이를 먹으며) 재 어때?

만지 귀여운데...

갑자기 화장실로 가는 천지.

만지 왜 그래?

천지가 들어간 화장실에서 게워내는 소리가 들린다.

25. 분식집 <현재>

화장실을 바라보던 만지, 고개를 돌리면 앞에 화연이 앉아있다.

만지 전에 돈까스 못 사준 게 걸려서.

화연 (포크 자기 앞에 놓다가. 먼저 만지 앞에 놓는다) 감사합니다...

만지 천지랑 단짝이었다며. 많이 속상했겠네.

화연 초등 때부터 친구였던 거지.. 단짝은 아네요.

천지 죽은 날에...반애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수행 평가 때.. 천지가 좀...화난 듯 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구요. 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몰라줬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

그러긴 했지만... 그건 반 아이들도 알아요.

만지 속상하냐고 물었을 뿐인데...답이 꽤 길다.

화연 아. 그제...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만지 ...

화연 속상하죠. 당근..
 만지 천지 없어서 심심할 줄 알고 단짠한테 뭐라두 사줘야겠구나..했는데.
 단짠은 아니다. 그거네... 왜 안 먹니?
 화연 먹어요(오물오물) 천지랑 저.. 친했어요...단짠은 아니라는 거지.
 만지 너희들 요즘 엠피쓰리 다 있지..?
 화연 아마 그렇겠죠. ...귀찮아서 안 갓구 다니는데... 왜요..?
 만지 천지가 죽기 전에 엠피쓰리 사 달라구 떼쓰다가 갓거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지...(돈까스 폭 집는다) 먹어.
 화연 (지지 않고 돈까스 폭 집는다)
 저랑 선물교환 하기루 해서 그랬을 거예요.. 생일선물루.
 만지 생일이었니?
 화연 ...미리. 친한 사이끼리는. 미리 정해 놓구 일년 안에 해주자. 뭐..그래요.
 만지 일년치 땡겨서. 그냥 두루두루 친한 사인테.
 귀찮아서 안 갓고 다니는 엠피쓰리를 달라....좀 세다.
 화연 싼 것두 많은데...이 만원 안팎으루다가.
 만지 (먹으면서)등신
 화연 (움찔)
 만지 등신같이 싼 것두 있다는데 고민하다... (무시) 왜 안 먹니?
 화연 먹어요. (바로 먹으며)
 만지 (슬쩍)수경이란 애는 ..친해?
 화연 개 진짜 노는 앤데.. 그냥 친구의 친구요.
 ...천지랑 잘 아는 거 같던데. 체육복도 서로 빌려 입구.
 만지 (!) 천지랑 수경이랑 체육복 빌리고 빌려줬다.?
 화연 ...네. 뭐.

생각하는 만지의 얼굴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화연의 얼굴 위로 소리

수경 (소리) 화연이가 나랑 이천지 체격이 비슷하다고 개 꺼 갓다 준거라구요.

잠시 후 눈물을 흘리는 화연. 진짜 눈물이다.

만지 갑자기 왜 그래?
 화연 천지 그렇게 된 게 마음 아프고 또 내가 천지한테 잘 못 한 건 없나?
 뭐 그런 게 생각나고 해서요.
 만지 친구가 좋구나 이렇게 울어도 주고.

화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만지 ... 천지 ... 수행평가 때 어땠는데?

26. 교실. 서진여중. 낮. <과거>

철판에는 <선입견이란 무엇인가>라는 수행평가 제목이 보이고.
대형 티브이에 천지의 답안지가 보여 진다.
그 옆에 서서 자신의 답안을 읽고 있다.

<선입견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선입견이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1.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재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베이스: 잘한다. 포인트: 멍청

천지는 읽고, 그것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
서로서로 티 나지 않게 눈짓을 한다.
화연을 슬쩍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이선생 몰래 전달된다.
화연은 천지의 얼굴을 빨리 보다가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냥 본다.
보던 아이가 시선 치운다.

천지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박수. 와우~환호하는 아이들까지.

이선생 (반응에 뿌듯) 이번 수행평가에서 천지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예시도 좋았고. 선생님도 생각지 못할 만큼.. 아주 예리해. 잘했어.
천지 (불안한 눈빛. 하지만 애써 당당하려 꾀꾀이 서 있다)
이선생 천지야... 이제.. 앉아두 돼.
천지 ..아. 네.

자리에 가서 앉는 천지. 수업종이 울린다.

동시에 화연은 천지를 보고, 천지는 붉은 털실이 빠죽 나온 보조가방을 꼭 잡는다.

반장의 ‘차렷, 경례’

이선생이 교재를 정리하는 순간이 더디게 흘러간다.

의자를 살짝 뒤로 빼고, 보조가방을 들고 바로 튀어나가려는 천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화연. 선생님이 나가자 먼저 일어난다.

27. 서진 여중 앞 길 <과거>

삼삼오오 아이들 속 혼자 하교하는 천지를 기다렸다는 듯 옆에 붙는 화연.

화연 (생글)발표 재밌드라.

천지 (입 꼭 다문다)

화연 제법이야. 그래도 예비살인자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았나..?

천지 ...확정된 살인자라고 할까?

천지를 가만히 쳐다보는 화연, 하교하는 아이들이 화연을 보고 멈춰서 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갑자기 살가운 표정으로 변하며

화연 미안, 천지야. 미안, 미안. 화 풀어. 응? 미안하다니까. 미안. (손을 대자)

천지 만지지마!!!

놀란 화연. 다시 “미안. 미안”하면서 근처 아이들 무리에 섞인다.

영문 모르는 아이들은 “넌 맨날 뭐가 미안하냐?”고 한다.

빠른 걸음으로 가는 천지를 바라보는 화연의 눈매가 서늘하다.

28. 길. 오후 <현재>

초원 아파트로 가는 길. 화연, 지난 일이 생각나는 듯 앞서가는 만지의 뒷모습을 본다.

만지 (고개를 돌리고) 안 가?

화연 네...

어색하게 나란히 걷는 만지와 화연.

화연 같은 아파트로 이사 왔다니....정말 몰랐어요

만지 난 어제 너 봤는데. 너두 나 본 거 같던데.

화연 그럴 리가요. 그럼 인사했겠죠.

만지 (걷는다)

화연 (따라 걷는다)

만지 ...

화연 ...

만지 ...

화연 우리 아파트 디게 낡았죠. 전 여기서 나고 자라서
지긋지긋해죽겠는데. 울 엄마 아빤 보신각이 망하지 않는 한
꿈쩍두 안할 걸요. 보신각 짜장면 맛있다고 소문이 나긴 났는데,,

만지 너. 말없이 그냥 가는 거 못하지.

화연 ...

만지 침묵 불안하지.

화연 ...

만지 조용히 좀 가자.

화연 ..

만지 ...

화연 ...아. 이런 기분이구나.

만지 ?

화연 얻어 먹구 가만있음 건방져보여서 언니 기분 좋으라구 조잘 거린건데..
천지가 언니 쿨 하다더니. 정말 쿨 해. 언니한테 말 함부루 못한다구
그랬던 것두 같구...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아요.(방긋)

만지 (어쭈) 동생 죽고 쿨한 년이 쿨한거나. 등신이지.
하긴. 시간도 지났으니까.. 얘기 해두 되긴 하지..
유서두 찾아 보구. 아직 천지 짐두 안 풀렸어. 집에 상자 그대로야.

화연 (긴장) 유서 없다는데...

만지 없긴 왜 없겠니. 찾아보질 않은 거지. 이제 슬슬 시작해보든가...

화연 ...

만지 (화연 표정 보더니)말든가...

초원아파트에 다 왔다.

산뜻하게 인사하고 얼른 집으로 향하는 화연. 표정이 확 바뀐다.

화연이 가는 모습을 뚫어져라 보는 만지.

29. 화연방. 초원 아파트. 오후

엄마 손이 덜 간 집. 어수선 해 보인다.
화난 듯 자기 방에 서랍장을 여는 화연.
서랍 깊이 숨겨둔 종이를 꺼낸다. ‘절친 각서’라고 써 있는 종이다.
화연, 절친 각서를 들고 화장실로 간다. 변기에 넣고 돌려버린다.

30. 현숙집. 초원 아파트. 오후

집에 들어온 만지 가방을 놓으며 리폼하다만 천지의 책상 위 천지의 입학식 사진을 본다.
밝은 천지의 모습과 만지는 떨어져서 인상 쓰고 있고, 현숙은 코트 주머니에 마트
앞치마 꾸겨 넣은 채 지쳐 보인다.
만지, 사진을 못 보겠다. 사진을 서랍 속으로 집어넣는다.

만지 (핸드폰을 건다.) 어 미란아. 미라한테 들은 얘기 좀 해봐. 천지랑 화연이...

가만히 듣고 있는 만지

31. 마트

마트 내에 있는 국수집으로 부랴부랴 가는 현숙. 앞치마 대충 끌르고는

현숙 얼른!

주인 비빔?

현숙 국물 . 국물 있는 걸루. 많이 좀 줘! 곱배기.

주인 (얼른 국수 한 그릇 내준다)

현숙 (나무젓가락 꺼내서 쪼개며 후후 불어가며 먹으려다가 만다.

고개 푹 숙이자)

주인 두부야...왜 또. 울어?

현숙 백년치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서 나올 눈물두 없어

...뺏속에서 난 자식 보내놓고...곱배기루 국수 처먹구 앓았다...생각하니

어이없는데. 또 그러구 산다. 내가..

주인 위에서 다 내려다봐..먹어

현숙 (국수 후루루 먹다가 갑자기 운다)

32. 교무실. 낮

화연 앞에 천지의 물품이 든 상자가 놓여있다.

이선생 천지 언니 너랑 같은 아파트 산다며.
짐이 많아서... 너보고 좀 도와달라더라.
화연 (천지상자를 본다)

33. 교실 늦은 오후. 빈 교실

천지의 상자를 들고 나가려다 가만히 보는 화연.
무슨 생각이 든 화연.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노트를 뒤진다.
후루룩 넘어가는 책장.

34. 교실. 서진여중. <과거>

교실로 들어오는 천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연 아이 뭐야 아직도 꿈한거야? 사과했잖아
(갓다 붙인다)내가 벌써 아이들한테 뺑이라고 했는데..
우람아. 내가 전에 천지 멍청하다고 한 거. 잘못 본거라고 했지.
초등학교 때 왕따 아니었다고 정정했지.
우람 응. 정말 그거 때문이야? 난 또.
천지 나두 처음 듣는 애긴데. 그거 때문 아냐.
화연 그래, 그럼. 아무튼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종이 내민다)
천지 ?
화연 절친 각서.
천지 !
화연 (모두에게 선언하듯) 우리가 절친임을 증명합니다. (연습장에
만들어 놓은 2장을 내밀며) 자 싸인.
천지 (이 모든 쇼가 웃긴다. 하지만 싸인 한다)
화연 절친 기념으로 맞다. 너 나한테 엠피쓰리 주기로 한 거 있지.

그거 생일 선물루 말구 절친 기념으루 줘. 난 디카 줄게.
 아이들 앞에서 교환식을 갖겠습니다.
 소녀들 우우(박수친다)
 미라 (쳐다보는데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린다.)
 천지 (아무 표정이 없다) ...

35. 현숙집 앞. 초원 아파트. 저녁 <현재>

쾅 소리와 함께 열리는 문. 만지가 나온다.
 그 앞에 천지의 상자를 들고 있는 화연.

화연 단짝인데...그건 천지생각이었고 전...개가 좀 숨막혔어요.
 천지가 무슨 일만 생기면 따박 따박 따지고 들어서 피곤하기두 했구요
 만지 그럼. 그만 놀자고 하지 그랬어. 상자 안으루 넣어.(몸 비킨다)
 화연 천지는 저 말구 친구 없어요.(깡깡 거리며 상자 안으로 넣어준다)
 만지 너 때문에 너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화연 단짝 아니라고 한 게 맘에 걸려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지 쌓인 트림하니? 속 시원해..?
 화연 저랑 부딪힐려고 애쓰지 마세요. 별 거 없으니까
 만지 들고 오느라 수고했어(문 닫는다)

36. 마트.

어이없어 하는 현숙의 표정.
 콧만호가 한 바퀴 돌면서 시식을 다 하고 있다.

현숙 저 인간 ... (아는 척 하기도 싫다.)
 만두 언니 보러 온 거 아냐?
 현숙 ..아냐. 공짜라서 온 거야.
 만두 아예 밥을 먹으러 왔구만.
 만호 (시식을 하며 현숙에게 윙크 날린다.)
 만두 어머!
 현숙 어머. 저 그지 새끼... 내가 저 새끼한테 밥 사준 거 모았으면 ...
 내가 미친년이지.. 어마!!! (오대오가 눈앞에 있다.)
 오대오 (자기도 놀라서 뒤로 움찔) 하...

현숙 아. 거 머리 좀...

오대오 두부 세모만 주세요.

현숙 뭐. 잔치 해. 뭐 할건데 찌개. 구이?

오대오 만두 만들려구요.

현숙 근데 세 모나?

오대오 냉장고 가득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로 밥 대신 해요.

현숙 만두 속 할꺼든 저기 가서 썬 거 사. 이거 비싸.

오대오 (진짜 고맙다는 표정) 아... 네. 감사합니다. (가고)

만두 묘하네...

현숙 뭐가?

만두 언뜻 보면 맹해 보이는데 언뜻 보면 잘 생겼어.

현숙 재가? 너 궁하니?

하는데 곽만호가 앞에 서있다.

만호 현숙아 얘기 좀 하자.

현숙 경비원 부르기 전에 꺼져라.

만두 불러줄까?

만호 좋은 말 할 때 나와... 안 그럼 나 매일 온다.
(애원하듯) 잠깐만 응? 현숙아.

현숙 ...

37. 마트 근처. 골목. 낮

만호 (무릎을 꿇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현숙아.
내가 잘못했어.

현숙 너 잘못된 거 없어. 그냥 니가 싫어. 됐어? (가려는데 다리를 잡는 만호)
손 안 치워?

만호 못가. 안 봐! (일어나 억지로 안으려 한다.) 나 너 안고 싶어서
암 것도 못 하겠어.

현숙 야... 아악... 절루 안 가 야!!!

(소리) 거기 뭐하세요.

현숙, 떨어지자마자 만호의 뺨을 후려친다.

만호 이런 쌍! 너 미쳤냐?

만호, 손을 들고 현숙을 때리려는데 순간,

만호의 손을 퍽하고 잡는 어떤 손.

언제 왔는지 오대오가 만호의 팔을 잡고 서있다.

때마침 불어 온 바람으로 머리를 날리는 오대오의 멋진 모습.

움찔하는 만호, 긴장감이 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대오 만호의 주먹을 맞고 쓰러져

일방적으로 맞는다. 현숙이 소리 지르며 만호의 몸을 잡고 들어진다.

멀리서 보안요원들이 뛰어온다. 썩썩 거리던 만호 “전화 받아...”하면서 두 사람을 흘기더니 간다.

오대오 (일어서며) 아. 왜 말리세요. 역습 노리고 있었는데.

현숙 역습? 맘껏 때리쇼 하고 있더라.

오대오 ... 학교 다닐 때 워낙 많이 맞아서 복싱 배웠거든요.

 요렇게 얼굴하고 허리 가리고 있음 맞아도 견딜만해요.

현숙 ... 정말 괜찮아?

오대오 네. 헤헤.

38. 서진여중고. 점심시간.

만지와 미란은 벤치에 앉아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있는

지민은 옆에서 허리 살 빼는 진동기를 허리에 차고 온몸이 덜덜 거린다.

지민 (덜덜거리며)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중에 골라.

미란 (쌍까고) ...난 미라 잘 키우는 게 꿈이라니까.

 울 미라. 없느니만 못한 아빠랑 불쌍한 엄마 보구 자라서.. 내 마음이 좀

 그렇잖냐. 미라 대학 보내구 시집 보내구. 잘사는 거 보면서 늙어 죽을 거야

만지 ... (천지 또래의 아이들에 눈이 가있는 만지)

미란 아. 미안

만지 그만 미안해 해라. 난 니 앞에서 속도 없이 맨날 엄마 얘기 했잖어..

미라 ...그게 같냐.

만지 하긴.. 다르지.

미란 화연이넌은 족쳐봤어?

만지 처음엔 자기가 뭐 잘못된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울더라.

 그러더니 나중엔 천지도 잘 한 거 없대...

미란 그런 건 죽을 맛이 뭔지 좀 알아야 돼. 아 또 열 받네.
만지 (자꾸 천지 닮은 여자 아이들에게 눈이 간다.)
지민 (만지의 눈을 가려주며) 그만 봐...
만지 (고개를 떨군다) 후...
미란 미라는 천지가 혹시 화연이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 아닌가 하더라.
 천지랑 화연이 그런 게 좀 오래 됐나봐.

39. 초등학교 운동장. 낮

천지, 화연 그리고 몇 몇의 학생들이 술래잡기를 하던 중 둘러 서 있다.

천지 (화연에게) 내가 너 쳤는데. 넌 왜 술래 안 해?
화연 안 맞았다니까. 그치 애들아.
아이들 맞아 화연이 안 맞았어.
천지 (억울해서 아이들을 쳐다보고)
화연 알았어. 내가 맞았다고 하고 술래 할게.
아이1 야. 그런 게 어딤어. 웃겨 정말...
아이2 천지 너 좀 이상해.
화연 (말리는 척) 에이.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천지, 억울해서 울음이 터지고

아이1 앤 걸핏하면 울더라.
아이2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이3 애랑 못 놀겠어.
화연 우리 이러지 말자.
천지 ... 너희들은 왜 항상 우리고 난 왜 항상 애야?

40. 교실. 서진중학교. <과거>

연필꽃이를 아예 갖다놓고 갖가지 볼펜에 형광펜을 꽃아놓고 책상 위에 두는 화연

화연 (주변 애들한테) 필요하면 써. 이건 공용이다.
우람 안 그래도 형광펜 안 가져와서 필요했는데
화연 써. 가지고 싶으면 갖구.

우람 정말..?
 천지 (그걸 보더니) 좀 조용히 주지. 그렇게 큰소리로 주면
 받는 애들이 더 불편 하겠다
 우람 (빨춤. 형광펜 들고)나..불편해야 하는 거야..?
 화연 천지언니. 언니. 그만해.. 그럴 수도 있지

사이.

생일카드를 돌리는 화연. 하나씩 주면서

화연 봄에 태어나지 못한 한풀이로 좀 땡겨서 생. 파(생일파티)예요.
 오셔서.. 배터지게 드십시오.
 친구들 와~ 우리 반에서 처음으로 하는 생. 파!
 화연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경이라구...좀 노는 친구 있긴 한데.
 친구1 개 유명해. 개 알아두면 학교생활 짱 편한데. 너 개랑 친해?
 화연 같은 초등학교 나왔잖아. 니네들이 안 불편하면 개두 부른다.
 친구 좋지.

화연. 옆어져 있는 미라에게 카드 꽂아주고
 왕따 미소는 보란 듯이 피해가고, 천지에게도 가서 준다.

41. 보신각. 오후 <과거>

소녀들과 미라. 수경이까지 참석한 화연의 생일.
 열다섯 명 정도. 많은 아이들이 북적북적
 벽 쪽. 가장자리에 미라와 무서운 수경이 앉아있다.
 아이들은 수경이가 온 것이 신경 쓰인다. 자기소개도 하고. 괜히 말도 걸고.

우람 천지두 오지?
 화연 어.
 친구1 너 무지하게 천지 챙겨. 그치?
 화연 천지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개 어렸을 때 아빠 죽었거든. 자살루.
 친구들 !!!
 미라 (만두 집다가 화연을 본다)
 친구1 부인하고 딸들이 있는데 무슨 자살이래. 그래서 천지가 음침하구나.

야..우리 천지 천지 하지말자. 뒤에서 욕하는 거 같애
친구2 비슷한 얘기 들은 거 같애. 초딩 때 니네 학교 애들한테.
화연 ‘울 언니’루 하자. 괜히 ‘천지아빠’들으면... 벌 받을라.
친구2 (바로. ‘울 언니’장난 시작)울 언니가 그래서 음침 했구나...
친구3 나두 들은 거 같은데. 울 엄마두 그래서 천지...아니 울 언니 얘기 별루
안 좋게 해. 공부 잘 하구 이쁜 건 좋은데...집안 분위기가 영 그럴꺼라고.
화연 그래두 우리. ‘울 언니’한테 잘하기.
친구들 알았어..우리가 뭐 엄한 애 따 시키는 애들이니. 그런 건 나두 싫어.
미라 (만두 씹어 먹는다)
수경 (음식에 집중하며, 스마트폰만 본다)

그 때, 문이 열린다. 천지가 들어온다.
학생들 얼른 연예인 얘기로 화제 돌리면서 천지 온 거 반긴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는 않는다. 시선도 주지 않고
입으로만 ‘왔어~’ ‘늦으셨네요’하는 식.

천지 (주섬주섬 들어온다)세시 아니었어?

미라가 슬그머니 초대장을 펴서 시간을 확인한다. 2시로 적혀있다.

화연 2자를 쓴다는 게 3자를 썼네. 미안.
친구2 울 언니가 섭섭해 하겠다.
우람 ... (눈치 본다. 해두 돼?)
친구3 덕분에 울 언니가 나중에 등장 했잖아. 주인공인거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친구4 (인상 쓴다) 언니 얘기 그만~

이때, 천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가 전해진다.
진동소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도착 알람.
친구1의 스마트폰 - ‘재, 작년에도 3시에 오지 않았어?’

천지 (뭘지..?)
화연 그냥.. 언니 얘기들 하는 거야. 천지두 언니 있잖아. 천지언니는 어때?
천지 울 언니 ...쿨 해.

친구2의 스마트폰 - ‘그래? 난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라서’

학생들 그렇구나... (끄덕끄덕 뭔가 시선이 오간다)

미라 (친구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먹던 만두 내려놓는다)

친구3의 스마트폰 - ‘짜장면이라도 하나 시켜줘야 하는 거 아냐?’

여기저기서 카톡, 카톡 하며 울린다.

수경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혼자 킁 웃더니)아...웃겨.

천지 (수경 본다. 하지만 못 본 척).

화연 천지야 앓어. 선물은?

천지 (그런 얘기 없었는데)...뭐 갖고 싶었지?

화연 엠피쓰리플레이어~(아양 떨며)

천지 미안. 깜빡했다.

화연 야. 농담이야. 농담. 내가 언제 생일선물 얘기했냐! 몸만 오면
된다구 했지

천지 (난감. 하지만 질 수 없다) 그거 해 줄려구 했어. 지금은 그냥
땡겨서 하는 거잖아. 니 생일 2학기 때니까 정확히 그 날 해줄게.

화연 고마워.~

계속해서 카톡의 신호음이 들려오고, 친구들은 천지 몰래 킁킁거린다.

수경 난 먼저 간다

화연 수경아 왜 벌써 가?

수경 정신 사나워서. 간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하고는 나간다)

화연 (슬쩍 천지 보더니)엄마 애 짜장면 하나만 해줘!

애들은 나가는 수경에게만 관심이 쏠려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천지. 나무젓가락 뽑아서 만지작만지작.

미라. 그런 천지를 본다.

화연 엄마가 짜장면 한 그릇을 천지 앞에 내어준다.

천지 (꾸벅)감사합니다.

화연과 아이들, 카카오 톡으로 “딩동(카톡 신호음) “어머 재 그걸 먹는다.” “눈치 제로”

“저러니 애들이 싫어하지”등 문자로 천지를 따 시키며 자기들 끼리 즐거워하고 있다.

천지, 다 알지만 묵묵히 자장면을 먹는다.

화연 천지야, 오늘 다 같이 노래방가자.
천지 난 있다가 가볼 곳이 있어서.....

화연이 천지를 보며 피식 비웃는다.

화연 난 분명히 같이 가자고 했다. 괜히 나중에 내가 너 따돌렸다고 하면 안 돼!

가만히 자장면을 먹는 천지. 킁킁거리는 친구들.

42. 복도. 서진여중 <과거>

복도에 서있는 화연과 수경. 계단으로 천지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자 화연은
“저기 오네” 하며 자리를 피한다. 천지, 수경을 지나치는데

수경 야! (천지 보면) 너 왜 썩까?
천지 응? 누구?
수경 웃겨. 어제 화연이 생파.
천지 아.
수경 너. 체육복 좀 빌려줘라. ... 왜 대답이 없어?! 싫어?!

수경을 가만히 쳐다보는 천지. 그 모습을 훑쳐보는 화연의 뒷모습.

43. 천지교실. 서진여중. 낮 <현재>

아이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화연 들어온다.

철판을 보니 과장된 이쁜 글씨로 ‘등교 순. 자리 바꾸기’라고 써어 있다.

이미 짝은 다 찾은 아이들. 싸한 눈빛으로 화연을 본체만체 한다

화연이 앉을 곳은 혼자 앉은 정식 왕따 미소와 그 뒷자리뿐.

화연은 맨 뒷자리에 가서 혼자 앉는다.

잠시 후, 가장 늦게 도착한 미라. 너무 달려서 숨 몰아쉬고 입장.

그런데 이런. 미소 짝이나. 화연이 짝이나. 맨 뒷자리에 가서 앉는다.

미라 너무 뒤잖아.
화연 (그나마 앉아준 것에 고맙다) 유치하지 않니 우리가 중학교까지 와서

이런 자리 바꾸길 해야 되나

미라 (그냥 쿵 소리 나게 앉는다)

화연 ...

미라 니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 그랬지.

화연 내가 언제?

미라 니 생일날.

화연 (글쎄...하듯 하다가 애들보고는)내가 그랬나? 가물가물하다..
나두 소문으루 들어서..

미라 (강조)울 언니가 만지언니 친군데. 너랑 천지랑 어땠는지 하두
꼬치꼬치 물어서...어디서부터 애길 해야 할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분이 왜 자살이냐구.. 울 언니 열 받아 팔짝 뛰드라.

화연 그게... 나도 전해들은 거라

우람 맞잖아. 화연이. 니가 그랬어.

화연 (당황)

친구1 그래서 천지 음침하다구. 나두 기억나.

화연 맞음 만지언니한테 말해.
그 언니 맨날 보는데 뭐. 하두 보니까...정 들드라.

미라 ... (가방에 있는 것 꺼내는데)

화연 (나름 태연)...너 5학년 때 전학 왔었잖아. 그 때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미라 왜?

화연 뭐..그냥. 그래서 내 생일 때두 초대했잖아

미라 (가소롭다) 이제 불을 애가 없어서. 나한테 불니? 만만해보여?

화연 대세잖아. 니가.

미라 안하던 칭찬에 인정에. 궁색하긴.

화연 (미소) 진심을 개 무시 하네..

미라 초딩 때부터 너 전학 온 애 킬러라는 소문 있었어.

화연 (미소 확 사라지며)누가 그래?

미라 애들이 너 조심하라구. 안 그러면 천지 꼴 난다구

화연 기가 막혀. 나랑 천지랑 되게 친했거든.

미라 니가 하라는 대로 다하는 게 친한 거냐?

화연 부탁하면 천지가 들어준 것뿐이야

미라 거절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게 부탁이냐? 명령이구 강요지

화연 (피식)놀아주기나 했음...
나야 불쌍해서 놀아주기라도 했지. 넌...천지하고 상종이나 했냐?

미라 (조용히 일어난다. 그러더니 두툼한 수학참고서로 화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쿵~)

학생들 (쳐다본다)

미라 천지가 이렇게 되받아칠 줄 모르니까 네 밥인 줄 알았지?

화연 (아이들의 시선 의식해서 표정관리 하지만 잘 안 된다)

미라 어쨌면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괴롭히냐? 나 같아도 자살 했겠다

화연 콧미라 너 웃긴다. 이제 와서 웬 영웅.

싫든 좋든 끝까지 놀아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미라 그래. 나 천지하고 안 놀았다.

그래도 너처럼 교묘하게 괴롭히진 않았지.

그리고 너 양심도 없다. 솔직히 천지는 다가가기 힘든 애구.

넌...니 별명 된 줄 알아? 만날 먹을 거 사줘. 노래방비 다 내줘.

극장가면 팝콘 꼭 돌려. 지갑이야. 지갑. 공짜지갑!

화연 (애써 가소롭다는 미소. 하지만 코에서 피가 뚝)

미라 (가방에서 휴지 꺼내 던져준다)

화연 하아.. 어이없어. 천지 살아있을 땐 한마디 안하고 다들 가만있더니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년 이다? 만지언니한테 고스란히 말해줘야겠네.

천지 은파였다고. 반 아이들이 은근히 따 시킨. 은파.

내 생일 때. 천지만 빼고 카톡 한 증거 있으니까.

니들 다...공범이야 (휴지 다시 집어던지고는) 이딴 휴지 안 써.

44. 화장실. 낮

코피를 닦는 화연. 흐르는 눈물도 닦는다.

45. 보신각. 낮.

분주하게 움직이는 보신각의 홀과 주방. 화연모는 주문 음식의 포장을 하고 있다.

잠시 후, 화연이 보신각으로 들어온다. 바빠 움직이다 문득 화연을 보는 화연모.

화연모 학원은?

화연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다시 바빠 움직이는 화연모. 철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는 박군.

박군 (화연에게) 왔어?

화연모 박군아. 이거 3동 202호.

박군 네.

박군은 철가방에 음식을 넣고 화연모는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주방을 나온 화연부가 밀가루 들고 가면서 화연을 쳐다본다.

화연부 밥은?

금새 주방으로 들어가는 화연부.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 섬처럼 서 있는 화연, 잠시 보다가 이내 보신각을 나간다.

46. 미란의 집. 밤

작은 반지하 집. 미라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고 미란은 라면을 끓이고 있다.

미라 만지 언닌 어때?

미란 만지 뭐?

미라 화연이, 화연이라니까!

미란 너 화연이랑 안 좋은 일 있었니?

미라 개가 천지 얼마나 괴롭혔는데.

미란 너도 천지 별루 안 좋아 했던 것 같은데.

미라 솔직히 뻔히 당하는 거 알면서도 순진한 척, 모르는 척, 더 싫어.

미란 함부로 말하지 마. 너. 솔직히. 천지랑 친구 하기도 싫고 안 하기도
좀 그랬는데 천지가 죽었어. 괜히 찢리니까 화연이 걸고넘어지는 거
아냐? 너 혹시 천지 괴롭혔니?

미라 그나마 잘해 준 건 나야.

미란 어쨌든 힘든 거 알면서도 안 도와준 거잖아. 니네 반에서. 거긴 너도 있었고.

미라 억울해. 꼭 엄한 사람만 죽어. 울 아빠 같은 사람은 남고 울 엄만 죽고.

이때 만호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양말 벗어던지고, 발로 tv켜고, 드러눕고.

만호 야! 라면냄새 죽인다. 가져와

(TV에서 나오는 축구를 보더니)저 새끼는 맨날 개발이야

뽕을 발에 차줘도 못 넣어요. 병신 새끼.

미란 (먹으려던 라면 고스란히 상에 얹어 갖다 준다)

미라 (괜히 책상의자에 앉아. 가방 정리한다)
 만호 (쩍쩍 거리며 먹는다.)
 미란 (상중하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소리로)
 입에 짹짹이를 달았나. 드럽게 짹짹거리네.
 만호 들린다...
 미란 (문을 살짝 열고)미라. 이제 학원 다녀야 해요. 초등학교랑은 많이 달라요.
 만호 뭐가 달라. 중학교엔 선생 없어?
 미란 (꼭 참고) 자격증은 땀어요?
 만호 (계속 먹으며) 니가 따냐? 신경 꺼.

미란, 꼭 참고 불쌍하다는 듯 미라 얼굴을 만져준다.

미란 화내서 미안...
 미라 아니야...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는 만호. 전화가 걸려온다. 액정을 보더니 전화를 받는다.

만호 어, 나야. 응. 그래? 당장 가야지.

젓가락을 놓는다.

만호 야, 그 호구새끼는 만날 잃으면서 만날 덤비냐? 판이나 제대로 키워보자.
 어, 그래.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전화를 끊고는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일어나는 만호. 옷을 챙겨 입다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미란, 미라와 시선이 마주친다. ‘에이’하며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바닥에 놓는다.

만호 (신발을 신으며) 씨발. 여편네... 안 받네 안 받아.
 뭐 새끼 죽었다고 지도 따라 죽을 거야? 쪼그만 것들이 남들이 죽으면
 다 따라죽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입 하나 더는 거지.

문을 열고 나간다.

미라 언니... 나. 저 여편네 알아.

47. 마트. 낮

만두를 먹는 충현(중2정도)을 물끄러미 보는 현숙.

만두 애들이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그 때 집중적으로 괴롭힌다잖아
 cctv 같은 거 달곤 뭐해. 없는데서 때리는데... 암튼 윗사람들 생각들이...
충현 (먹으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모. 엄마 걱정해.
현숙 (짜릿)
만두 알았어. 담부턴 도망갈 때 없음 일루 와. 학교 바루 옆이잖어.
충현 어. (먹는다) 맛있다..
현숙 잘 생겼네.
충현 감사합니다.
현숙 이거 두부전이야... 것두 먹어.
충현 감사합니다.
현숙 예의두 발라... (오만원짜리 주며) 이거 먹구 싶은 거 사먹어
만두 아냐. 괜찮아. 무슨 오만원씩이나...
현숙 괜찮아. 가져두 돼. 대신 부탁하나 할까?
충현 ?
현숙 ... 니 엄마한테 꼭 말해 ... 꼭이야. 안 그럼. 아줌마가 가서 말해 줄꺼야.

48. 현숙집. 초원 아파트. 저녁

화연이 가져온 상자를 뒤지는 중인 만지.
연습장도 후르르 뒤져보고. 쓰던 자습서 앞뒤 다 훑어보고.
필통도 뒤집어 보고, 보조가방도 열어보고. 뜨다만 털실뭉치들을 본다.
그리고 발견한 수첩.
시립도서관 대출증이 있다. 열어본다. 천지의 사진.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첩 치우고. 책상에 앉는다.

현숙 웬일로 늦게까지 공부야
만지 뭐 좀 찾아.
현숙 그럼 그렇지. 앞집 애는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공부하고 있더라.
만지 또, 또 옆집 애 괴담.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옆집 애 타령이야?
현숙 그러는 너는, 니 친구 엄마 괴담은? 하나같이 교양 있고, 최신형 핸드폰은

나오면 재깍 사주고, 컴퓨터는 날마다 업그레이드에, 특하면 해외여행이지?

만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현숙 (양말 벗으면서) 세탁기에 넣어. 양말 젖어서 꼬꼬해. 밥은?

만지 더럽게 진짜.

현숙 엄마의 고단함이 느껴 질 거다. 밥은?

만지 (쿵쿵)엄마 술 마셨어?

현숙 (속이 안 좋은 지 계속 가슴 만진다)밥 먹었냐구 몇 번을 묻냐.

만지 먹어야지. 속 안 좋아?

현숙 (비닐 내놓는다)이거. 만두가 너 주라구 싸줬어..같이 먹자구.

만지 속 안 좋냐구. 몇 번을 물어.

현숙 ...먹은 것두 없는데..

만지 ...

현숙 ...

만지 일루 와봐. 며칠 전에 양호선생님한테 배웠어.(바늘과 실을 가져온다.
엄마 어깨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린다. 양호선생님이 한 것처럼)

현숙 ...넌 왜 양호실 갔어.

만지 ...

현숙 (애뜻하게 만지 보다가. 베란다에서 쥐 소리. 생각난다)아 맞다..쥐.
이번 주말엔 저거 잡자. 총력작전으루 소탕해버리자. (없던 힘난다)

만지 그러시든가

현숙 뭘 대답이 그케 힘아리가 없냐?

만지 (웬히) 엄마는 대학 왜 갔어?

현숙 실력이 되니까 갔지

만지 아뻘 뭐가 좋았어?

현숙 잘생겨서. 갑자기 웬 인터뷰야.

만지 남자 외모 보는 것두 유전이야.

현숙 그게 뭐 어때서. 능력 보는 거랑. 외모 보는 거랑. 뭐가 달라.

만지 현숙씨의 그 교육은 제가 꼭 이어받으게요.

현숙 (가슴 쓸며)좀 낫네..

만지 이제 손 판다 (엄지에 실을 돌돌 맨다. 완전 집중)...아빠 조각 했었다구
했지... 맞다. 어렸을 때. 분수처럼 이렇게 커진 큰 조각품 있지 않았나?
방에? 거기에 옷도 걸구 그랬던 거 같은데.(바늘로 톡)

현숙 아 (아프다. 검게 나오는 피 보며)그건 그냥 옷걸이야. 기집애야.

사이 (현재 - 과거)

달빛. 현숙이 등 돌리고 자고 있고 만지는 등보고 정적.

잠이 오지 않아 만지 몸을 돌리면 과거의 천지가 만지를 보고

천지 ...우리반에 박미소라구 있는데...따 당하거든. 이유를 모르겠어.

만지 (건성) 다 당할만하니까 당하지..

천지 ... 언니는 되게 무뚝뚝한데... 친구 많은 거 보면 참 신기해..

만지 안 많아.

천지 (슬쩍)언닌...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친구 없어?

만지 (귀찮다.) 그런 애하곤 친구 하지 마.

천지 만약에 친구 할 애가 그런 애밖에 없으면?

만지 그냥 혼자 다녀.

천지 ...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만지, 아프다. 다시 몸을 돌린다.(현재) 엄마의 등이 보인다. 코를 골지 않는다.

만지 엄마... 나 너무 나쁜 언니였던 것 같애...

현숙 (뒤돌아서) 나두... 나쁜 엄마

만지 천지는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 힘들다구... 근데... 난...

현숙 너 똑바로 들어... 이건 천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응?

만지 그래도 알아야겠어. 뭐가 그렇게 천지를 힘들게 했는지.

안 그럼 내가... 내가... 못 살겠어.

49. 보신각. 아침

장사 준비로 바쁜 보신각 내부. 화연부와 박군은 주방을 들락거리고 화연모는 홀을 정리중이다. 잠시 후, 가방을 메고 보신각으로 들어오는 화연.

화연 엄마.

화연모가 화연을 쳐다본다.

화연모 너 아직도 학교 안 갔어?

화연 오늘은 좀 늦게 가도 되는 날이야. 나 이 만원만 줘.

친구 생일인 거 깜빡했어.

화연모 그래, 깜빡했으니, 잊지 말고 받아가야지, 암. 아이고, 나도 나도 내 딸이었으면 좋겠네. 친구 생일이라고 돈 줘, 어디 놀러 간다고 돈 줘.

화연모가 돈 통에서 이만원을 꺼낸다.

화연 겨우 이 만원 갖고 왜 그래!

화연모가 화연을 가만히 쳐다본다.

화연모 학교 늦게 가도 되는 날이라고?

화연 그렇다니까!

화연모 그래, 내가 그 말은 믿을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얘기 좀 하자.
그 뭐냐 천지, 죽었답서?

화연 !

화연모 니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어. 하는 말이, 너 못 받아 주겠대. 애들을 너무 괴롭힌다고. 흐미, 학원도 먹고 살자고 하는 장살텐디, 꼬박꼬박 원비 내는 가시나를 못 받아 주겠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여?

화연 엄마는 왜 항상 다른 사람 편이야? 엄마 딸 나 아냐?

화연모 나는 팔쥐 엄마라도 쿡쥐 편이여! 녀의 가슴 구녕 내고 땡기는 딸년을 워땡게 편을 들어.

화연 (더 듣지 못하고 획 하고 나가버린다.)

화연모 저 싸가지가! 에이고, 어째 저래 컸을까? 내가 그때 짜장면이 아니라 뽕이라도 맥여서 보냈어야 되는 것인디. 으이그.

50. 화연 몽타주

학교에 가지 않은 화연, 혼자 시간을 보낸다,

혼자 밥 먹고, 그냥 걷고, 아이 쇼핑하고 하지만 금새 할 일이 바닥난다.

51. 시립도서관. 오후

화연, 생기 없는 얼굴로 도서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오대오를 본다.

오대오 (걸어오는 화연 발견) 어! 너?

화연 아저씨 바빠요?

오대오 아니, 왜?

화연 그럼, 나랑 좀 놀면 안돼요?

오대오 뭐 하구?

화연 그냥 애기요.

오대오 요즘은 만날 혼자 다니네.

화연 ?

오대오 니 둘. 키 차이가 많이 나서 멀리서도 확 티나

화연 ... 죽었어요.

오대오 (화들짝) 천지가?

화연 아저씨가 천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오대오 천지가 죽었다고?

화연 ... 자살요.

오대오 (헉) 어쩐지..

화연 어쩐지는 뭐구. 천지 이름은 어떻게 아냐구요.

오대오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고개를 푹 숙였다)

화연 (의심스럽게 오대오를 보더니) 아저씨.. 천지에 대해 뭐 알아요?

오대오 여기서 종종 봤어. 애기 하는 걸 좋아하는 애라.. 이런저런 애기두 하구

화연 개 애기하는 거 완전 싫어했는데

오대오 책도 많이 읽고. 애기하는 거 싫어하진 않았는데..

화연 아...(묘한 낱안으로) 아저씨한테 좀 달랐네..

오대오 언니 이름이 만지 랐거든. 근데 옆집에 이사 온 애가 이만지라잖아.

분위기는 다른데 참 닮았더라구. 안 그래도 천지는 왜 없나.. 했다.

... (한숨) 알다가도 모르겠네..

화연 종종 봤나 봐요?

오대오 도서관에서 보면 밥 먹구. 뭐.

화연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는데요?

오대오 수행평가인가? 그거 준비한다고 왔었어.

화연 (놀람. 그러더니 불현듯) 아. 제가 뭘 깜박했다. 안녕히 계세요

오대오 (머리 한쪽으로 모아 내리고 고개 숙인다. 고개 절레 절레)

이럴 수가...천지가..

52. 화연집. 초원 아파트. 저녁

아무도 없는 화연의 집. 화연 생각에 잠기더니 핸드폰을 집어 든다.

53. 현숙집. 화연집. 초원 아파트. 저녁

가족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지. 핸드폰이 울린다.

화연 옆집에 긴 머리 아저씨 살죠?

만지 ...추상박?

화연 조심 하세요 그 아저씨 천지랑 아는 사이예요.

만지 근데. 왜.

화연 천지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같이 본 적 있었거든요.

그래봤자..대충 인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나 몰래 시립도서관에서 둘이 만났대요.

만지 너 지금 둘이 엮는 거냐?

화연 그렇게 들리면 그런거구요. 전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 걸 왜 이제 얘기해.

화연 오늘 만났는데...언니가 천지언니 맞지? 하더라고요.

만지 !

화연 꾀짜 아저씨 줄 알았는데. 찼찼해요. 여학생 좋아하는 거 같는데

언니도.. 조심하시고...이건 말 안 할려구 했는데...천지 죽기 전날!

그 날도 도서관에 가서 둘이 만났대요.

또 알아요? 천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던 건지..

황당한 만지 뛰쳐나간다.

54. 현숙 집 앞. 복도. 초원 아파트. 밤

오대오집 앞에서 벨을 누르는 만지. 아무도 없다.

55. 현숙집. 초원 아파트. 밤

빨간 모자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뒤척이는 만지.

현숙 (만지 기척에 부스스) 쥐 때문에 그래?
만지 (얼른 다시 눕는다) 아냐..자.
현숙 (졸면서) 저느무 쥐새끼.
만지 엄마...천지한테 혹시..
현숙 혹시..뭐.
만지 천지라고 끔찍한 일 안 당한다는 보장 없으니까..
현숙 ...
만지 폭행이라든가...뭐...
현숙 니가 묻는 폭행. 그거 성폭행 말하는 거냐?
만지 ...
현숙 그런 거 없었어.
만지 자신해? 우리만 몰랐던 거 아닐까? 혹시 임신이라도...
현숙 초경두 안한 애가 무슨 임신이야
만지 아..맞다.
현숙 ...
만지 그래도 만약에.
현숙 만약도 어디서 그런 만약을 들어? 너 무슨 말 들었어?
만지 무슨 말은 혹시나 해서지.
현숙 혹시나는 무슨.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오만가지 생각에 못 살어. 관둬.
만지 ...
현숙 다른 건 몰라도 내 딸한테 남자 지나간 건 알어. 엄마만 알어.
안지나갔어. 천지한테..
만지 ...원해서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런 것도 엄마 느낄 수 있어?
현숙 다르게 느껴지겠지. 아주 넌더리나게
만지 만약에...내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떨 거 같아?
현숙 이 기집애 만약은 왜 다 이래!
만지 ..
현숙 만약에 그러기만 해봐. 그 새끼 ...갈기갈기 찢어 버릴 거야.

56. 시립도서관. 늦은 오후

만지, 사서에게 천지 대출증을 보여준다.

사서 대출조회요?

만지 동생이 책 좀 빌려달라는데. 전에 빌린 거 하구 중복될까 봐요..

사이.

사서의 도움으로 빌린 책의 목록을 보는 만지.

‘영혼의 병. 우울증’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우울증에 관련한 책들이다.

예상치 못한 책 목록에 망연자실한 만지, 힘없이 걸어 나오다 털썩 주저앉는다.

오대오 (소리) 만지학생?

만지 (본다. 잠을 설쳤는지 오대오 가르마가 엉망이다)

57. 도서관. 벤치 낮

커피를 들고 벤치로 오는 오대오.

오대오 학생이라고 커피 안 마시는 거 아니지?

만지 마셔요

오대오 (주며) 사람들이 카페인을 너무 경계해.

난 어릴 때부터 마셨어두 말짱한데

만지 지금 아저씨 상태 보니까 경계해야할 것 같은데요

오대오 ..왜. 머리 때문에?. (커피 건네는 동시에 바짝 만지에 붙어 앉는다)

만지 (움찔)

오대오 (갑자기 고개를 만지 쪽으로 숙인다)

만지 으악, 뭐해요! 미쳤어요?

오대오 (아랑곳없이 숙인 채)보이지

만지. 오대오의 뒷목을 본다. 살과 살이 짓이겨진 화상자국이 있다.

오대오 (숙인 채) 천지가 머리 자르라구 그렇게 얘기 했는데두..

내가 이걸 안 보여줬다...너라두 봐.

만지 ...

오대오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났어. 등까지 이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괴물.

그때 학교 그만 두고 머리 길렀어.

만지 (슬그머니 다시 자리에 앉고)

오대오 ... 천지 얘기 들었어.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오대오 너도 책 좋아 하나봐?

만지 안 좋아해요.

오대오 그럼 여긴 왜 왔어.

만지 내 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서요.

오대오 (한숨) 후...

만지 아저씨 내 동생 알잖아요.

오대오 알지, 공부하기 되게 싫어했던.

만지 좋아했어요.

오대오 싫어했어.

만지 (오대오를 본다) ...

오대오 천지가 그렇게 공부한 건, 성적이 좋아야 자기 말을 신용하기 때문이라더라.
안 그러면 자기 말은 항상 공중분해 되는데.

만지 (눈가가 축축해진다.)

오대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만지 아니예요. ... 또요. 그냥 했던 얘기 아무거나.

오대오 친구 중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애가 있다면서 증상 리스트를 적어준다고
했어. 그 반대로 해서 우울증처럼 안 보이게 한다고.

만지 우울증처럼 안 보이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대오 우울해 보이면 친구들이 싫어해서 다 떠난다구. 그래서 숨겨야 한다구..

만지 친구가 뭐라고... 그걸 숨겨요.

오대오 (자기 얘기다.) 친구 있는 애들은 몰라. 가족도 중요하지만

천지 나이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절반이야.

친구가 없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야.

거기다 그 친구들이 괴롭히기라도 하면...

만지 하아... 근데 아저씨 천지랑 어떤 사이예요. 어떻게 가족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오대오 살다보면...엄한 사람한테 속 얘기 할 때가 있는 거야.

엄한 사람은 비밀을 담아 두질 않거든. 내가 그 엄한사람이야.

오다가다 밥도 같이 먹게 되면 먹구.

아. 맞다. 내 책이 두껍잖아. 천지가 그거 베구 잘 잤어.

그거 베구 자면 머리가 잘 돌아간데..

만지 (괴롭다.) 아... 진짜 난 그 동안 뭐하고...

오대오 (만지 본다) 자책하지마라. 원래 엄한 사람보다 가족이 더 몰라. 그래서
가족이야...모르니까 평생 끈끈한 거지.

만지 한마디만 해 줬어두 좋았을 텐데.

오대오 ...

만지 아저씨. 유언이 없는 건...무슨 유언일까요?

오대오 ...?

만지 묻지도. 알지도 말라는 건지. 제발 알아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서...미칠 것 같아요...

오대오 ..

만지 나좀 봐... 정말.. 엄한사람한테...별 애길 다해.

58. 운동장. 해질 무렵

텅 빈 운동장.

운동장 한복판에 누워있는 만지.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본다.
그 옆으로 걸어오는 미란.

미란 ... 죽 이러구 있었던 거야? 집에두 안가구?

만지, 누웠다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두리번거린다.

굴러다니는 공을 발견. 저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서 뺨 찬다. 헛발질.
핑그르르르 돌아가 멈추는 공.

미란 뭐하냐?

만지 축구

미란 골대 없이 골이 들어가냐?

만지 있어 (손으로 가리킨다. 축구 골대가 구석에 덩그러니 있다)

미란 대박. 우리 학교에 골대 있는 거 처음 알았어.

만지 ...안 쓰니 보이지도 않아...

미란 왜 이러구 있어

만지 들어가야지... 가자.

미란 야 화연이 그 쌍년이 니 아빠 자살 했다고 고정 레파토리로 흘리구
다녔 댜다. 미라가 그 때마다 정정해줬대. 사고라구. 그럼
(화연 흉내) '아. 맞다. 주워들어서. 미안'. ..아 열 받아.

만지 (침착하게 가방 메며) 울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서 꼬마 천지는 그렇게 울고. 나는 그렇게 먹었대.

아빠 사진 있는 식당마냥. 쳐 먹었다더니...

천지는 울고. 난...잘 먹구, 힘내서 열심히 살라는...

아빠의 깊은 뜻이 아니었을까..

미란 ...야. 그 말 은근 슬퍼. 너 왜 그래..하지 마? 관둬?

관두라면 미라 입 얼마든지 막을 수야 있지...평온해지고 싶어?

니 뜻대로 해줄게.

만지 (중학교 운동장 쪽을 보더니)저거 할래.

미란 ?

사이.

만지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미란 하나. 둘.

만지 (뚝 떨어진다)

미란 ..

만지 (앉은 상태에서 그냥 있다)

미란 만지! 더 할까? 들어가?

만지 (그냥 앉아 있다) 철봉에서 삼초 매달리기도 힘든데...천지는 어떻게...
...(고통스럽다)

미란 (본다)

만지 '언니 때문에'..소리 나을까봐. 울 엄마 욕 들을까봐...

빨리빨리 이유 알아서 애 하나 잡아서 결론내면...좀 편하겠지..했나 부지.

아닌가봐.. 힘들어두... 평생 물어 봐야할 거같다...'.천지는 왜 그랬을까...'

미란 ...

만지 ...

미란 (만지를 일으킨다)

만지 (일어나지를 못한다)

미란 (옆에 같이 앉아준다. 아무 말 없이)

지민 (허리에 진동기를 차고 뛰어오며) 야. 짜장, 냉면, 칼국수 중에 정해!!!

59. 마트. 저녁.<현재. 과거 교차>

현숙의 매대 앞으로 다가가는 만지.

현숙 너 뭐야. 여길 왜 와 이 시간에..뭔 일 생긴 거야?
만지 그냥.
만두 두부 큰딸이야? 이쁘네. 딸들이 다 이빠.
만지 안녕하세요.
만두 딸들이 다 이빠.

<마트. 과거>

‘엄마!’ 예쁘게 부르며 나타나는 천지. 험령한 큰 교복을 포즈 잡는다.

천지 자잔. 언니가 교복 골라줬어. 이빠?
현숙 이쁘다....근데...좀 크다.
천지 언니가 3년 내내 입으라구
현숙 안 크면 어쩔려구
천지 크겠지(미소)

-다시 현재의 마트.

현숙 밥은.
만지 (상냥) 같이 먹자.
현숙 (의심 가득) 너 왜 그래
만지 (애써 상냥) 지나가다 들린거라니까요오~
현숙 ...이 앞을 왜 지나가
만지 (버럭) 지나갈 수두 있지!
현숙 (이제 안심.) 만두야. 물만두 좀 삶아라. 우리 딸 주게
만두 다 치웠어. 두부 부쳐줘
현숙 우리 애가 출소하고 왔냐? 삶아! 튀김말구.

<마트. 다시 과거>

현숙 만지 한테두 전화해서 우리 맛있는 거 사먹을까? 초밥!
천지 와~
현숙 (전화한다) 어 만지야. 너 어디야?
만지 (소리) 보충이야. 끓어
현숙 어머. 기집애. 쌀쌀 맞은 거 봐. 너 없었으면 만지 때문에 얼어 죽었어..

천지 (예쁘게 방긋)
만두 아고. 이빠라. 공부두 잘한다며. 니 엄마가 맨날 니 자랑이다. 이쁘네.
천지 (미소) 감사합니다.
현숙 (그런 천지가 너무 예쁘다)
만두 지금. 니 엄마 기분 좋으니까 원하는 거 있음 짹 짹 말해
천지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숙 그럼 이참에 진지하게 연애를 해볼까..?
천지 완전 좋아!
만두 하하하하. 진짜 효녀다. 효녀. 다른 거 뭐 바라는 거 없어?

-마트. 다시 현재.

만두를 먹고 있는 만지.

만지 바라는 거요? ... (현숙 뻘뻘 본다.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로 다른 쪽
종아리 툭툭 친다) 엄마 의자.
현숙 (짹)... 만두 더 먹어. 온 김에 니꺼 생리대 사자. 내꺼 같이 쓰는 거 걸렸어.
만지 됐어. 빨리 와. 안자고 기다릴게. 간다. (하며 비타 오백을 툭 놓고 간다.)
현숙 (좋다.) ... 기집애가 순 싸구려로 감동 시키네 ...

60. 길거리. 저녁.

마트 옆 비탈길을 오르는 만지. 문득 멈춰서더니 비탈길의 아래와 위를 번갈아 본다.

만지 엄마, 다리 되게 아팠겠다.

다시 비탈길을 오르는 만지.

61. 현숙집. 초원 아파트. 아침.

딩동댕 동! 울리는 아파트 실내 스피커.

스피커 다시 한 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오늘은 알뜰 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간식거리와 고사리, 도라지, 무, 생선 같은 찬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밥을 먹고 있는 현숙과 만지. 현숙이 스피커 쪽을 노려본다.

현숙 저놈의 스피커를 뽑아버리든가 해야지. 요즘은 다 개방돼서 나물이고 뭐고 거의 수입품이더만.

순가락을 놓는 만지.

만지 엄마 지갑도 조속하게 개방돼야, 우리 집 밥상이 풍요로워질 텐데.

현숙 이건 머리는 꼭 막힌 게 주둥이만 확 개방됐어요.
다 먹었으면 빨래나 좀 개. 기집애야!

한 쪽에 개어져 있는 빨래를 들고 일어나는 만지. 옷장에 정리를 하다가 한 쪽에 걸려있는 천지의 교복을 본다. 이 천 지. 라는 이름표가 선명하다. 윗옷 소매를 한 뼘, 두 뼘하며 재어본다. 두 뼘 반.

만지 참 작았네...

현숙 우리, 힘 좀 내볼까!

cut to

만지, 한손에 먼지 털이 쥐고. 다른 손에 현관문 손잡이 꼭 쥐고 있다.

현숙, 한손에 빗자루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베란다 문을 잡고 있다가

현숙 열어!

하는 동시에 베란다문과 현관문이 열렸고, 둘 다 벽에 바짝 가서 붙는데 베란다에서 목격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

만지 재 왜 안 나와? 숨은 거야..

현숙 ...안되겠다. 내가 들어가야지. 신발.

만지 (신발을 베란다 앞에 가지런히 놓는다)

현숙 신는다.

만지 신어

현숙 진짜 신는다.

만지 진짜 신으세요.
 현숙 (비장) 엄마가 마루로 쫓아내면 니가 현관으루 쫓아내.
 만지 (비장) 응. 아. 잠깐. 나두 뭐 좀 친구.
 현숙 뭘 집에서.
 만지 발에 닿으면 어떡해. (신발주머니에서 실내화 꺼낸다)
 이건 실내화니까 상관없어.
 현숙 좋아. 다시...준비하고..
 만지 (끄덕)
 현숙 간다!

현숙. 베란다로 들어가 미친 듯이 빗자루를 휘두른다.
 긴장하는 만지. 그 때 베란다에서 뛰쳐나오는 현숙

현숙 엄마야!

현숙 뒤로 통통 쥐가 뛰어나온다!

만지 으악. 으악. 으악.
 현숙 아아악.

통통쥐가 현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정신 차린 만지. 얼른 가서 현관문을 닫는다.
 이내 털썩 바닥에 주저앉는 현숙과 만지.

현숙 우리가 쫓아낸 걸까, 쥐가 탈출한 걸까?
 만지 쫓아낸 거야.

현숙이 일어나서 베란다로 간다. 만지는 실내화를 벗어서 다시 실내화주머니에 넣는다.
 잠시 후, 쥐가 값아 먹은 듯한 감자와 사과를 들고 나오는 현숙.

만지 뭐야 그게?
 현숙 굶어 죽을까 봐 그랬지.

싱크대에서 감자와 사과를 처리하는 현숙. 그런 현숙을 쳐다보는 만지.

62. 운동장. 서진여중고. 낮

체육선생이 공을 들고 피구 짤 팀을 정한다.

만지 (중얼중얼)중학교부터 맨날 피구야..
체육 (만지 속삭이는 거 들었다) 그럼 넌 공가지구 뭐려구.
만지 손으루만 중학교 내내 했으니까..발 좀 쓰자구요
체육 니네 앉아서 피구했니? 뭐하고 싶은데?
만지 축구요
체육 (푸하하) 거 봐. 니들이 기본을 몰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축구공이 아냐. 공이라고 축구했다 피구했다 농구했다가 아니야.
지민 축구해요.
만지 축구 시켜줘요.
체육 왜? 왜 하필 축군데?
만지 ...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체육 ?
만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축구골대 가리키며) 골대가...안됐잖아요.

사이.

다른 아이들은 관심도 없다.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체육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공을 다룬다.

그 앞에는 오직 만지. 지민. 미란뿐.

체육 외로운 골대 때문이라니.
그래. 하자. 단 나를 재끼고.(거만) 쉽진 않겠지만
하다보면 학교체육이 피구만 열나 시키는지 니들이 직접 깨달을 테고.
나를 재끼고. 한글만 넣어.
만지 ...
체육 마냥 시간 줄 순 없고 15분 내로 넣으면 (히죽) 바로 축구수업이다.

체육이 능숙하게 공을 돌리며 짹째 달린다.

그런데 바로 낚아채는 지민. 체육, 다시 여유만만하게 따라가서 낚아채려고 하는데
드리블 하며 폭풍 질주하는 지민. 체육 조금 놀란다. 전력질주.

지민, 달려오는 체육을 재끼고 만지에게 패스

만지. 있는 힘껏 슛~

철썩. 짜릿.

너무나도 쉽게 골~인.

만지 (통쾌함. 기분 완전 좋다.)
미란 (달려가서 만지 껴안는다)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지민 (달려가서 둘 껴안으며) 골인? 골인! 골~~인!!!
체육 이런 걸 오프사이드라고 하는데...원래는 무효야...뭐..

다른 학생들까지 덩달아 환호한다. 간만에 너무 좋아하는 만지.

63. 수돗가. 낮

운동장에서 여학생들 슷 골인~하면서 헛발질 하고 있고.

미란 (손 씻으며)저녁에 학원 가?
만지 (손 씻으며)아니.
미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어. 눈이 쾡하다.
만지 너나 나나. 집안 살림하기도 힘든데 뭘 손님이나. 성가시게.
먹은 걸루 통~
미란 잘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만지 드더 쥐 잡았어.
쥐 잡은 기념으로 엄마 쉬는 날에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 해서
베란다청소 해야 돼.
미란 니 엄마랑 울 아빠 얘기야...와
만지 ...

64. 미란집.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만지, 미란, 미라.

만지 이 청빈한 상차림은 다 뭐야?
미란 재료가 조금 부족했어. 먹을만 해.
만지 쫄면에 계란 없는 건 봐주겠는데 떡볶이에 오뎅은 왜 없어?
미란 맛있거든!
만지 차라리 주스대신에 오뎅 사지. 난 떡볶이 오뎅 먹는 맛에 먹는데..
미란 너 피곤해보여서. 비타민 c 먹일러구 샀다.

만지 (먹어보더니) 맛있네. 태어나서 손님대접 참이다...기분 완전 좋아.
 그니까. 이제 할 말 해.

미란 (졸면 뒤적이더니) 네 엄마.. 만나는 사람 없어?

만지 있었어. 알고 보니 양아치였데. 뭐 그렇게 끝난 것 같고.

미란 그 양아치 우리 아빠야.

만지 별로 안 궁금했는데. 그 남자였군.

미란 안 놀래?

만지 분위기 다 풍겨 놓구. 어떻게 놀라라는 거냐? 엄마가 얘기한 거
 니 아빠 얘기 종합하니 그림이 그려지던데.
 울 엄마 니 엄마 일 몰랐데. 니 아빠가 예전에 죽었다고 했데.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미란 나쁜 새끼...

만지 두 사람 결합시키잔 애긴 아닐 테구. 얘기 끝난 거 같은데 뭐가 더 있어?

미란 아냐.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거 같아서 그게 좀 걸려서..

만지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미라 (만지를 뚫어지게 본다)

만지 (미라보며)넌 뭘 그렇게 보니?

미라 ..천지랑...많이 달라요. 언니.

만지 뭐가 그렇게 다른데...

미라 (말문이 막힌다)좀 많이.

만지 혹시 천지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없니?

미라 천지한테 언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언니가 우리 언니 친군지도 몰랐고요.

만지 차라리 욕했다고 하는 게 더 낫네. 천지가 두 사람 일은 알았니?

갑자기 음식을 내뱉는 미라. 우웻!

미란 (등 쳐주면서)애가 드립게.

미라 천지.. 울 아빠 몰라요. 그런 아빠둔 거 쪽팔려서 말 못했어요.

미란 (미라 앞에 물 준다) 괜찮아?

미라 어. (방긋) 아까운 거 뺏었네.

미란 됐어. 많아.

만지 (다정한 자매를 본다. 불현듯 울컥) 에이. 니들 뭐야.

미란,미라 ?

만지 다른 집 자매들두 니들 같은 거 아니지?
 나란히 음식하고 언니가 숟가락 주면

동생이 젓가락 주고. 콜록대면 등 두드려주고. 그런 거 아니지?

미란 ... 응

만지 먹다 말구 미안한데... 오뎅 없어도 진짜 맛 좋거든...

나.(울컥) 가 봐야 할 거 같아서

미란 미라야 언니 마중 나갔다 올게

만지 나오지 마. (얼른 자리 뜬다)

나가면서 가슴 치는 만지.

65. 마트. 휴식시간

만두, 다른 직원들과 떠들며 털모자를 만들고 있는 현숙.

털실이 바닥나고 감겨있던 종이가 툭 하고 떨어지자 집어 드는 현숙,

반으로 접힌 종이를 무심히 열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얼굴이 변한다.

눈가가 붉어지는 현숙. 이마에 손 올리고

만두 밥 잘 먹구 왜 그래? 난데없이 모델포즈야.?

아줌마 깔깔깔.

현숙 하... 하... (눈을 가리고 운다)

66. 몽파주 <과거>

다세대연립. 오전/

천지 엄마..나 아파

현숙 어디가

천지 속도 안 좋구....학교 안가면 안 돼?

현숙 아파두 학교 가서 아파. 점심도 거서 먹구. 집에 먹을 것 두 없는데.

정 못 견디면 양호실서 누워있어.

너 그리구 체육복 빨리 갖구 와! 어디다 흘리고 다니는 거야...

마트/

바쁜 가운데 눈치 보며 전화중인 현숙.

선생 (소리) 화연이라는 애랑 천지랑 늘 붙어 다니는 건 아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화연이라는 애가
좀 괴롭히는 거 같아서요. 떼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현숙 (건성으로 대답)네.
(전화 끊으며 방긋)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거>보신각/

화연모 (테이블 치우며 듣는 등 마는 등)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현숙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걸 텐데... 좀 심한가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종게 종게 얘기하는 중)
화연모 (하던 일 한다)

67. 보신각. 낮 <현재>

드르륵. 문이 열린다. 놀란 눈으로 현숙을 보는 화연모.
티 나게 반갑지 않은 듯 주섬주섬 일어난다.

현숙 여기 짜장면 하나요.
화연모 (주방을 향해) 홀에 짜장 하나!
현숙 평일이라 그런지...좀 한갓지네요.
화연모 요즘 걸은 시상엔 주말도 매한가지예요
현숙 이사 왔는데 떡 한장도 못 돌리고..사는 게 팍팍합니다.

화연엄마. 짜장을 현숙 앞에 놓는다. 앉던 자리에 등 돌리고 앉다가
먹는 현숙을 보더니 마지못한 듯 일어난다.
현숙, 앞으로 고량주와 컵을 내놓는 화연모.

화연모 한잔 드세요
현숙 좋죠.
화연모 (잔 드는데)
현숙 (벌컥 마신다)카..
화연모 (다시 잔 내려놓으며)애 소식은 진적에 들었구만요...
현숙 (맛있게 먹는다)
화연모 여기 가만있어도 들려올 말은 다 들려오더라구요.

(다시 현숙 잔을 채워주며)

숙이야 아리겠지만...날 때 가지고 나온 밥그릇이 고만헌가보다
혀야지요... 뭐.

현숙 가지고나온 밥그릇은 그냥저냥 했던 모양인데..누가 자꾸 재를
뿌렸나 보더라구요. 아 씨..

화연모 ...

현숙 (단무지를 아작아작 씹더니. 가방에서 뭔가 꺼내어 놓는다)
이거 주러 왔어요... 우리 천지가 화연이한테 꼭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직접 줬으면 좋았을 텐데...지야 젓밥 받는 몸이 됐으니...헐 수 있나..
화연이 맘에 들었으면 좋겠네..

테이블위에 mp3플레이어가 놓여있다.

화연모 (당혹)우리 애야..좋아 허겼지만서도..(현숙을 노려본다)

현숙 그럼 두고 갑니다.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화연모 아따 더 존 놔 받았 응께... 그냥 두시오.

현숙 아니에요. (하며 돈을 놓고 간다.)

화연모 ...

현숙 (나가려는데)

화연모 천지엄마... 공께...

현숙 사과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사과는요...용서가 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과를 받으면.. 억장에 꽃혀요.
게다가 사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지.
그거 저 숨을 구멍 파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나는 사과했어. 그 여편네가 안 받았지...그럴 거잖아.
(문을 열고 나간다)

화연모 (나간 쪽을 보고 혼잣말) 미안한데 내 이것만은 못 주겠소.
그래도 산 높은 살려야 하지 않겠소.

화연모. 엠피쓰리 플레이어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68. 보신각. 화장실

보신각 옆의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팔팔 쏟아지는 물. 변기에 토하고 있는 현숙.
잠시 후, 세면대로 다가와서 입안을 행귀 내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노려본다.

69. 연립주택 (과거)

식탁에 앉아서 가게부를 정리하고 있는 현숙.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천지가 들어온다.

현숙 왔니? 밥은?

현숙이 한 쪽에 놓인 냉장고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문을 닫는다.

현숙 천지야, 반찬도 없는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천지 나 짜장면 싫어…….

현숙 내가 못 살아. 지오디네는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다던데, 우리 집은 왜 딸년이 싫다고 해. 그럼 라면이나 끓여 먹자.

천지 엄마,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사진 앞에서라도 짜장면은 먹지 마.

현숙 보기 드문 짜장 안티네. 짜장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천지 나는, 짜장면이 너무 싫어…….

천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현숙 알았어. 무슨 짜장면을 그렇게 서러워해. 걱정 마. 라면 끓일 테니까.

천지의 볼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 두 손으로 천지의 눈물을 닦는 현숙.

현숙 라면도 슬프냐?

천지 짜장면 때문에…… 나, 죽을 거야……,

현숙 이런 살인 짜장을 봤나. 내가 그놈의 짜장에 된장을 확 발라버릴라니까, 걱정 말고 물부터 마셔라.

현숙이 컵에 담긴 물을 천지에게 건넨다.

현숙 천지야, 속에 담고 살지 마. 너는 항상 그랬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잘해도 싫어요, 소리는 못 했어. 만약에 지금 싫은데도 계속하고 있는 일 있으면, 당장 멈춰. 너 아주 귀한 애야. 알았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천지의 눈물.

현숙 에이, 나도 갑자기 라면이 슬퍼지네. 라면이 너무 슬퍼.

천지를 꼭 껴안는 현숙.

70. 보신각. 화장실.

원70에서 연결.

현숙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여기로 이사 왔는지? 나 끝까지 따라 붙을 거야...
당신들. 평생 내 얼굴 보면서 한번 살아봐. 빌어먹을...짜장면...

71. 현숙집. 초원 아파트. 밤

어둠속. 이부자리 속에 누운 현숙과 만지.

현숙 집이..너무 조용하다..노래도 안 들리고..
만지 ?
현숙 우리가 쫓아낸 걸까... 쥐가 탈출한 걸까..
만지 쥐? 지금 쥐 얘기 하는 거야?
현숙 맞아..쫓아냈지..
만지 ...
현숙 잘 자.
만지 엄마두.
현숙 잘 자.
만지 (엄마 쪽 본다)
현숙 (한숨)
만지 걱정거리두 없어졌는데... 왜 한숨? 쥐 한 마리 사다줘..?
현숙 ...

사이. 밤

잠을 자다가 신열이 나는 현숙. 불을 켜는 만지.
깨끗한 행주에 찬물을 적셔, 엄마의 식은땀을 닦아 준다

사이. 새벽

엄마 옆에서 간호하는 만지.
엄마가 경련을 일으킨다. 멍한 얼굴로 눈물만 흘린다. 놀라는 만지.

만지 엄마! 엄마!

72. 복도. 초원 아파트. 새벽

오대오 집 앞으로 달려가는 만지, 초인종을 누른다.
대꾸가 없자. 문을 두드리는 만지. 자다 말고 나온 오대오.

만지 엄마가...엄마가... 병원에 가재도 안가고...
오대오 아프셔?
만지 열나고 울고... 정신 없구... 계속 울기만해요.

73. 현숙집. 초원 아파트. 새벽

문을 열자 깜짝 놀란 만지. 그 뒤에 서있는 오대오.
옷장이 열려있고 천지의 사진, 교복, 물건들이 죄다 나와 있다.
엄마. 상자 안에 있던 붉은 털실뭉치를 쥐고는

현숙 (언제 아팠냐는 듯) 니 손으로 좀 찾지. 이걸 못 찾냐?.
만지 엄마..괜찮아.?! (천지 물건들 보더니)실성했어? 왜 이래..
현숙 (털실 던져주며) 그 안에 봐!
만지 뭘
현숙 거 속에. 천지..
만지 ..천..지?

만지, 천천히 들어와서 털실을 쫓다. 그 안으로 깊게 숨겨져 있는 쪽지가 보인다
손으로 끄집어낸다. 펼쳐서 본다.

<항상 부러웠던 우리 언니.
내가 멀리 떠나도 잊으면 안 돼. 사랑해. 언니.
-다섯 개의 봉인실중 두 번째>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오대오.

만지 이거 왜 말 안했어!
현숙 지금 말 했잖아.
만지 두 번째 라잖아! 다섯 개 중! 그럼 더 있는 거구...(하더니 울음이 터진다)
 이걸 왜 이제 말하냐구. 현숙씨...으앙...내가...이게 없어서...

천지가 날 원망하는 줄 알구...(엉엉. 애처럼 운다)
 내가...내가...(울음에 묻혀버린다)
 현숙 (만지 콩 때리며) 시끄러! 새벽에...야! 지한테 줬음 지가 찾아봤어야지.
 눈에 확 띄는 데 뒀드만. 조용히 안 해! (베게 던진다)
 만지 (베게에 얼굴 묻으며)고맙다...고맙다.....고맙다...천지야...
 현숙 ...

74. 만지의 꿈. 햇살 가득한 곳

천지의 손에 붉은 실이 왔다갔다.
 엄지와 검지로 실뜨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내는 만지의 손.

만지 (소리) 손만 꿈에 나왔어.
 현숙 (소리) 손은 어떻든.
 만지 (소리) 예뻐. 상태 좋아

75. 길. 아침

학교 가는 길.
 화연, 학교 가는 여학생의 무리들을 본다. 두 명씩. 세 명씩. 짝지어가는.
 화연을 본 아이들 전부다 수근 거린다.
 화연. 가다가 돌아선다.

76. 지하철 안. 오전

화연.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앉아있는 노인 보는데

노인 어린 것이 눈동자 한번 알뜰하네.
 화연 !

주변사람들이 하나 둘 화연 쪽을 본다.

노인 남 내려 보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는고?
 화연 (일부러 다리 꼬고 앉는다)

노인 조런 것들이 잔재주로 사람 낚고 멀쩡한 사람 뺑신 만들지.
임자 만나봐라...소금 뒤집어쓴 지렁이 신세지.

화연.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신경 안 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야하는 정거장 인 냥.
노인 한번 야리고 내린다.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모르는 노선으로 가서 도착하는 아무 지하철을 탄다.

77. 오대오 집 앞. 초원 아파트. 오전

난처하다는 듯이 서 있는 보신각의 박군.

오대오 문밖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아나?
박군 딱 요층에서. . 어제두 초원아파트 그릇만 없어졌단 말예요.
오대오 (하품 한다)날 의심하나? 비빔국수 땡기는 거 그래두 이웃이라고
 써뽕 한 그릇 시킨 건데.
박군 그게 아니라. 요즘 자꾸 우리 그릇만 없어져요.
 음식 이상하다구 항의전화 장난 아니구.
 철가방정군이 거 때문에 열 받아서 월급받자마자 관뒀단 말예요
 나 혼자 죽을 맛입니다.
오대오 갓다 뭐에다 쓰는데.
박군 ...화분 받침으루 쓰기두 하던데
오대오 꽃 한 송이 없는 집에!

78. 보신각. 낮

화연부 언놈이 자꾸 가져가노!
박군 아 진짜 못해먹겠다니까요..어느 집은 그릇 찾으러 갔더니
 떡살을 잡더라니까요. 재료 이상한 거 쓴 거 아니냐구.
 어디서 무슨 애길 들은 건지..
화연모 하나씩 하자. 그릇부터..잡고.
화연부 잡을 땐 잡드라도 일단 그릇부터 좀 맞춰야겠다. 이름 박아서.
화연모 쓰잘때 읍서요. 가주 갈라든 뿔이구 못 가주가
화연부 안 하는 것보다야 훨 낫지 뭐.
화연모 박군아 넌 부텨는 오토바이 뒤에 들통 지고 다녀라...

(혼잣말로) 재수 없는 여편네 된 저주를 퍼부어서...긋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데 전화가 온다.

화연모 (전화 받는다) 보신각입니다. ...아 선생님...네. 네...

그게 아니고 화연이가 급체를 해서..지금...좀 누워있습니다.

괜찮으면 뭐.. 바로 학교 보내겠습니다. 네. (허공에 대고 굽신)

선생님...(조용히)혹시 화연이가 좀 ...이상하게 굴어두...부탁드립니다.

죽은 애네 엄마가 일부러 이 아파트로 왔어요...(말 잘못했다) 아니 일부러 아닙니다. 아고 그럼요. 말조심 해야죠... 아고 압니다..네 감사합니다.

화연부 학교? 화연이 학교 안 갔대?

화연모 ...왜 저러고 사는가 몰라..가뜩이나 심란해죽겠는데

화연부 시퍼렇게 어린 게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 가꼬.

들어오기만 해봐라. 확 찢어뿌야지...가시나가 공부는 무슨.

장사나 배우라고 해라!

화연모 아요. 모르는 소리 좀 그만 해요.

남편 하는 말 듣기 싫어서 청소하는 화연모.

미닫이문 유리에 분무기 뿌려 닦으려는데 문밖으로 출근하는 현숙이 보인다.

현숙, 보란 듯이 화연모 태연하게 보면서 지나간다. 화연모. 분무기 떨어뜨릴 뻔.

화연모 주방에 있냐! 소금 한 되박 내와.. 문 앞에 확 뿌려 번지게..

79. 한적한 곳. 낮

가방에 손을 넣어 뒤적이는 화연. 뭔가를 꺼낸다. 디카다.

그것으로 하늘을 찍어본다. 찰칵.

<인서트> ‘화연아’하고 부르는 천지의 얼굴.

화연 널 미워했는지...좋아했는지...것두 이제 헛갈려

80. 복도. 서진여중. 오후

몰래 복도에 들어선 화연. 수업중이라 한산하다.

사물함 앞으로 가서 자신의 사물함을 연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내부.
이것저것 대충 치우고, 손을 깊게 넣어 디카를 놓는데.
잠깐, 손끝에 뭔가가 잡힌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붉은 실뭉치다.
멈칫. 이게 왜 있지?’

<플래시 백>

화연에게 털실을 건네는 천지.

천지 너 전에는 뜨개질 잘 했잖아. 필요할 때 써.

사색이 되는 화연. 옆에 쓰레기통이 보인다. 얼른 꺼내 버리려는데

이선생. (소리) 김화연..몸은 괜찮냐?
화연 (쿵. 놀라서 보고 털실을 바빠 가방에 넣는다.)
이선생 선생님도 교실 가는 길이니깐 같이 가자.
화연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면 애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선생 오다가 우연히 본 건데. 뭘.
화연 선생님이 신경써주는 애. 채수 없어 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선생 ...

먼저 가는 화연. 가방 속에 있는 것을 어딘가에 버리고 싶은데
이선생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결국 교실 앞까지 왔다.
수업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복적거리는 교실.

81. 교실. 서진여중. 낮

맨 뒷자리 미라 옆으로 가서 앉는 화연. 서로 무시하는데 이선생이 들어온다.
학생들 ‘왜 이렇게 일찍 들어 오세요~"야유하자

이선생 미안. 미안. 책만 놓고 나갈게~같이 있고 싶어 하는 내 맘을 그렇게 몰라.
화연 (미라 옆에 앉기 싫다. 손을 번쩍 든다)선생님!
이선생 어. 왜 화연아.
화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가뜩이나 작은데 칠판 보려고

에쓰니까...이게 좀 힘드네요. 오늘만... 앞 쪽으루 앉으면 안될까요?
이선생 파묻히긴 하네...화연이랑 자리 바꿔 줄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만 조금 날뿐. 섣뚱 나서는 학생이 없다.
미라는 화연이 가소롭다는 듯이 보는데.
천지처럼 뜨개질을 하던 미소.

미소 (사슬뜨기 하다가) 제가 바꿀게요.(뜨개질 채 들고, 가방 들고 일어선다)
화연 (방긋) 고마워. (털실을 건네며) 선물.

털실을 건네받는 미소. 그 모습을 쳐다보는 미라.

미라 (어이없다. 책 소리 나게 책상위에 놓는다)
이선생 그럼. 선생님은 정확히 쉬는 시간 끝나고..다시 오겠다.
...아님. 그냥 있음 안 되나?
학생들 우우(야유 보낸다)

이선생. 잠깐 교실을 나간다.

미소 (앉자마자 뜨개질 이어한다)
미라 뭐 만드냐?
미소 대충 앉을 얇은 방석.
미라 내 것두 떠주든가
미소 미쳤니!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간다)
미라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 아씨..난 가만히 있다가 박미소 폭탄 맞았잖아
학생들 (화연이 야린다. 저거 뭐니? 하듯)
화연 (일부러 앞 앞자리에 앉은 아이한테 까지 가서)담임시간에 숙제 있나?
학생1 그걸 여기 까지 와서 왜 묻냐?
화연 내 맘이야. (미라 앞자리에 앉은)성희야. 화장실 가자.
성희 안가! 너 때문에 박미소 이리 왔잖아!
화연 미안. 칠판이 안보여서...
미라 공부나 잘하면서 . 꼭 머리 안 되는 것들이 칠판 탓해요.
학생들 (킁킁)

수업종소리가 들린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걸음에 들어오는 이선생.

이선생 (나름 유머) 반갑다! 애들아!~

학생들 (썰렁)

이선생 반장!

반장 (일어나서)차렷. 경례.

화연 선생님!

이선생 어. 김화연. 또 왜.

화연 선생님...제가 아침에도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가고 학교 왔는데 역시 힘들겠네요.

이선생 (잠시 본다. 연극하는 거 다 보이지만)그래. 진단서 꼭 첨부해라.

화연 (연약)네...

하면서 가방을 싸는 척(열지도 않았는데). 괜히 부산스럽게 굴더니

이선생이 등보이며 판서 시작하자마자 유유히 교실을 나간다.

학생들 어이없어하며 화연의 퇴장을 본다.

미라, 화연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선생 (소리) 괄미라...미라야!

미라, 고개를 돌린다.

82. 교무실. 서진여중 <과거>

이선생, 미라와 마주앉았다. 배경으로 천지가 쭈뼛 선생님 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선생 미라가 인기가 좋더구나.

미라 그럴 리가요.

이선생 아이들이 고루고루 미라 칭찬을 많이 하던데.

미라 ...

이선생 그래선데. 박미소 말이야. 애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거 같은데..

미라 (입 꼭 다문다)

이선생 ..티 안 나게. 미소한테 말 좀 걸구 해줘라...

미라 ... 네.

이선생 됐어. 가봐.

미라가 일어서자. 옆으로 오는 천지.

천지 선생님...그거.

이선생 (수업시간에 압수한 뜨개질 건네준다)판 선생님 시간엔 하지 마..

천지 안했어요. 책상위에 올려 놔다구 가져가버렸어요.

이선생 판 생각하는 걸루 보이잖아(붉은 실로 길게 뜬 거 보며) 목도리니?

천지 정해논거 없어요.

이선생 정해 놓구 안 뜨면 무조건 사각형?

천지 그냥.. 넓은 거요. (미라를 슬쩍 본다. 받아든다)감사합니다.

미라 ...

이선생 미라 안 갔네.

미라 인사 하고 가려구요.

83. 교실 <과거>

점심시간이라 모두 나간 뒤. 몇 명만 남은 교실.

미소는 뭔가 열심히 노트에 쓰고 있고, 천지는 붉은 실로 뜨개질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이 둘을 보던 미라.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가 아닌 천지에게 간다.

미라 진짜 그냥 사각형 뜨는 거야?

천지 담임이 시키대...나한테 말 걸라구

미라 아니. 미소. 선생님들 눈에두 따들은 확 떠나봐.

천지 ..

미라 근데 싫어. 미쳤냐. 박미소 한테 뭘 폭탄을 맞을려구.

천지 (여전히 경계) 니가 우리 반 원만 짱? 몰랐네

미라 부러워할 구석이 없으니 원만 두리몽실이지.

못생겨. 공부 못해. 더럽게 가난해...다리 두꺼워

천지 (경계심 풀며 미라보며)

미라 니 대답 재밌더라. 그냥 사각형.

천지 ..그냥 사각형을 왜 뜨냐.

미라 그럼?

천지 무작정 넓은 거 뜨는 거야. 마음이 '됐다'할 때까지. 그리구 풀러

미라 이걸 넓어?

천지 (짤 거 보더니)음. 대략.

미라 풀자! 내가 해두 돼?

천지. 미라에게 작은 털실 뭉치를 건넨다. 돌돌돌 풀려나가는 천. 미라가 교실을 나간다.
따라 나가는 천지. 어이없는 데 웃음이 난다. 천지의 손에 들린 사각형이 계속해서 풀려나간다.

84. 복도-계단-운동장-아지트. 서진여중 <과거>

붉은 실이 복도. 계단, 운동장까지 이어진다. 천지의 손에 들린 사각형이 거의 다 풀리고 끝이 드러난다. 빠르게 움직이는 털실을 끝을 따라 뛰어가는 천지. 건물과 건물사이. 작은 공간 (썸1의 장소)로 따라 들어가는 천지. 큰 털실 뭉치를 들고 서있는 미라. 공간을 둘러보는 천지.

미라 붉은 실이 데리고 왔네.
천지 (웃음)
미라 너두 웃니? 참 봐.
천지 나 원래 잘 웃어
미라 그래.
천지 여기 뜨개질하기 딱 좋네...

85. 교실. 서진여중 <과거>

천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친다. 그러자 바로 점심시간 종소리가 울린다.
자동적으로 천지를 슬쩍 보는 화연. 그런 화연을 본체만체하는 천지.
미라와 시선이 마주치는 천지. 털실이 든 보조가방 들고 살짝 일어나 교실을 빠져나간다.
밝은 얼굴로.

86. 뭉따주 <과거>

비밀장소. 낮 /
혼자 뜨개질 하는 천지. 그 때 미라가 숙 고개를 내민다.

미라 여기가 니꺼냐?

미소 짓는 천지.

미라 박미소 한테 말을 걸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려고 있다가 머리폭발할 거 같아서 나왔어.

천지 (부스럭거리며 보조가방에서 감자칩 꺼낸다)먹을래?
 미라 뭐야 이거?
 천지 점심.
 미라 이걸루! 그래서 니가 빠적 말랐구나..
 천지 밥이나 이거나 칼로리는 비슷할걸.
 미라 (무심코)너 화연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서 식당 안 가는 거야?
 천지 그냥 온 건데...누가 나랑 화연이 이상하대?
 미라 ... 아니.
 천지 친구끼리.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게 우정이지.
 미라 ..아...그래. (감자칩 먹는다) 맛있다. 나 매일 와도 돼?
 천지 (좋아서) 그럼. 그럼.

천지의 얼굴이 밝아지고 둘이 좀 통하는 듯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동안 보여 진다.

현숙집. 저녁/

비상금을 꺼내는 천지.

가게. 저녁/

즐거운 마음으로 감자칩 몇 봉지를 사는 천지.

비밀장소. 낮/

숨겨놓은 상자에 감자칩이 있다. 그것을 나눠 먹는 미라와 천지.

미라 너 쉬는 시간에 나갈 때마다 화연이 디게 신경 쓰드라...
 몇 년째 둘이 절친 인거야? 너 전학오구 나서 쭉 이지.
 천지 응.
 미라 켈 먼저 말 걸어준 것도 화연이었을테구.
 천지 어떻게 알어?
 미라 개 원래 전학생들한테 잘했어. 나 전학 왔을 때두 그랬구.
 천지 성격이야 성격.
 미라 개랑만 다녀서 친구 없는 거 아냐?
 천지 나두 친구 많아.
 미라 아님 말구.

교문 앞/

생글생글 웃고 있는 화연.

학교에서 나오는 천지의 앞을 가로막는다.

화연 쉬는 시간마다 뿡~하고 사라지더라...나 몰래.

천지 (볼일 없다는 듯 지나친다)

87. 현숙집. 초원 아파트. 밤 <과거>

천지가 기분 좋은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 옆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현숙.

현숙 천지. 뭐 좋은 일 있어?

천지 음... 뭐... 응.

현숙 뭔데 같이 좋아하게.

천지 감자칩 둘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

현숙 ?...

88. 마트 옆 골목 <과거>

미라가 무언가를 훑쳐보고 있다.

만호 진짜야. 진짜 죽었다니까

현숙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아, 벌써 받았네. 애들 엄마 죽었 다는 거 보니

만호 그래 죽었다고. 이젠 진짜라니까!

현숙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일세. 이제는 진짜라고? 꺼져.

현숙, 가려는데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미라와 눈이 마주친다,

미라 (분노)엄마가 죽는 날까지 다른 여자랑 비교하더니 겨우 이런 여자였어?

만호 (당황)

현숙 (상황 파악 끝났다)별 거기같은 놈을 만났더니..

애먼 애한테 애먼 소리를 다 듣네..

미라 (현숙을 야린다) ...

현숙 네 맘 충분히 이해하니까...오늘은 아줌마가 참는다.

근데. 너 알려면 똑바루 알아라. 아빠가. 니 엄마하고 십년 전에

상처했었어. 오랫동안 부인 병 수발 하느라 가진 거 다 잃었지만..

새끼들 때문에..악착같이 살았대.
 네 아빠 얼굴 봐라..그냥 보면 얼마나 착하게 생겼냐.
 나도 속아서 삼년 만났어...꼬박꼬박 밥 사 먹이면서!
 미라 (현숙 말을 무시한 채 보려보는)
 현숙 (어이없지만 그 자리 떠난다) 에효...

미라. 확 돌아서 마트를 뛰어가자 잡는 만호.

만호 (미라 손에 삼 만원을 쥐어준다. 표정 험악해져서)
 새엄마 될지도 모르니까 싸가지 없게 굴면 죽어. 씨.
 얼른 가!(돌아서 다시 애원하는 투로) 천지 엄마!
 미라 (가다가 멈칫.)천지...엄...마...?(천지 엄마 본다)

89. 몽파주. 교실. 낮 <과거>

-싸늘한 미라의 시선을 느끼는 천지. 천지가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자.

미라. 고개 돌린다. 다짜고짜 그 옆으로 오는 화연.

화연 이번 주에 국어수행평가...어떡하냐. 나 준비 하나두 못했어..넌,
 천지 ...응...응?
 화연 못들은 척 하지말구. 내갯도 해줘라.
 아니다 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하고 자료 찾을 때 두개씩. 콜?
 그럼 무지 고맙구..
 천지 (미라가 신경 쓰인다)

-비밀장소. 비

우산 같이 쓰고 있는 미라와 천지.

미라 니 엄마.. **마트에서 일한다지 았았니?
 천지 응. 왜?
 미라 ...아냐.
 천지
 미라 맨날 감자칩만 먹으니까 속만 버렸다. 먼저 갈게..
 천지 (우산 내밀며) 쓰고 가. 아프다며
 미라 (망설이다가 우산 잡으며)니 엄마. 연애하나보드라.

천지 ?

미라 그렇다구.

천지 난 우리 엄마 연애하는 거 찬성이야.

미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대답에 꼬인다)그래?..
자기 딸은 이러구 있는데. 참 속도 편하시지..

천지 이러구 있다니. 뭐가?

미라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천지 내가 뭘 모르는 척이야.

미라 걸 나한테 왜 물어. 니가 알지. 아. 맞다. 이거 선생부탁이었어.
박미소와 이천지. 올 반의 공식 왕따와 비공식 은따한테 말 좀 걸어줘라.
근데. 나두 이젠 지겨워.

천지 ... (비를 고스란히 맞는 천지)

90. 초원아파트. 늦은 오후 <현재>

만지, 집에서 나오면서

만지 거기 시립도서관이죠. 분실물 중에 붉은 털실 뭉치 같은 거...없나요?
제가 놓고 온 거 같아서...네. 알아봐주세요. 네...(기다리더니)
아...없어요. 아. 네...네..감사합니다.

만지, 오대오집의 초인종 누르는데, 엄마가 쌀 5킬로 짜리 들고 올라온다.

만지 엄마 나갔었어?

현숙 아고 무거워. 들어 봐봐.

오대오 (소리) 누구세요~

하는데 동시에. 콧만호가 "천지엄마!" 나타난다. 몰래 쫓아온 것.

현숙 (놀라서) 너 이 새끼. 콧 신고해버린다! 가!

오대오 (소리) 누구세요!

만지 !

현숙 (만지보고) 너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해!

만지 무슨 일이야?

현숙 신경 쓸 거 없어. 돌려보낼 테니까 얼른 들어가

만호 (들이댈다) 니가 만지구나. 내가 느이 엄마

하는데. 팍~ 쌀포대를 만호에게 날려버리는 현숙.

현숙 느이 엄마. 뭐! 니가 아직 내 성질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응!

만호 (쌀포대 두 손으로 받으며 뒤로 자빠진다. 표정 확 바뀌더니)

아, 씨. 너 나 쳤냐? 이게 확!

현숙 때리고 싶니? 때려. 니 마누라 뺐던 뭇까지 어디 살다 나오고 싶으면 때려!

만호 이게 죽을라고!

만호. 현숙에게 팔을 휘두른다. 놀란 만지가 엄마를 확 끌어당기는 그 때.

동시에 오대오가 얼굴을 빠금 내밀고 나오다가 만호의 싸대기를 제대로 맞는다.

오대오 (긴 머리 뒤로 넘기며) 아! 뭘니까!

만호 자주 보네. 근데 이건 놈이야 년이야.

오대오 놈이다.

만호 그냥 들어가. 임마!

오대오 (복싱 자세 취하며) 덤벼.

현숙 아, 하지 마!

만호, 먼저 주먹을 날리는데 살짝 피하고 주먹을 날리는 오대오.

만호, 턱에 제대로 쏘인다. 만호, 휘청하더니 다리와 눈 풀리고 쓰러진다.

놀라서 바라보는 현숙과 만지. 오대오는 더 놀라고

현숙 더 안 때려? 쓰러졌는데. 저번에 더 맞았잖아.

만지 엄마!

오대오가 만호에게 달려가서 부축한다.

오대오 죄송합니다! 팬찮으세요?

정신을 차린 만호가 다시 오대오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다.

현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만호를 뜯어말리지만 힘이 달린다. 난장판이 벌어진다.

만지 미란이 아저씨!

큰 소리에 활극이 멈춘다.

만지 아저씨! 이럴 시간에 미란이 미라 신경 좀 쓰세요.

만호 니가 미란이 미라를 어떻게 알아?

만지 미란이는 내 친구고, 미라는 천지 친구예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새아버지 되는 거 싫어요!

인상이 찌그러지는 만호.

만호 (현숙에게) 딸 한번, 푹 부러지게 키웠다! 씨팔! 잘 살아라!

획 돌아서 가는 만호.

91. 현숙집. 초원 아파트. 저녁

오대오, 쭈뼛거리며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만지 (핸드폰을 들고) 니네 아빠 우리 집까지 왔었어.

와서 한판 했지. 그런 거 아냐...엄마랑은

완전 끝이라니까. 걱정말구.(듣는다) 그래.. 그게 낫겠다. 도망가 있어.

지금 빨리 찜질방으루 튀어

현숙 일루 오라구해.

만지 ?

현숙 오라구 해. 교복 챙겨서. (오대오에게 커피를 주며) 살다보니 별 꼴이야..

할 때 그 ‘꼴’을 봤다 생각하면 돼.

오대오 어머니는..괜찮으세요?

현숙 네. 보시는 대로 아주 괜찮습니다.

오대오 어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나 막 만나나봐.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한다.

오대오 어, 저, 저는, 그게....(일어나며) 아, 참! 라면 물을 올려놓고 왔네.

후다닥 나가는 오대오.

92. 현숙집. 초원 아파트. 저녁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둘러앉아 있는 현숙과 미란자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만지.

만지 잘 먹겠대.

현숙 와서 먹으라니까 그러네. 우리도 먹자.

미자매 (겸연쩍어 하며) 잘 먹겠습니다.

만지 제사상도 아니구..이게 얼마 만에 얻어먹는 거야.

현숙 (미자매 보며) 맛은 있을 거야. 대충 했어두...

미자매 (먹는다)

현숙 (먹는 거보더니) 아빠는 집에 자주 오니? 그 인간 하는 짓 보면
나 몰라라 할 것 같은데...

미란 ...

미라 ...

현숙 니들 우리 마트 자주 왔잖아..

물건 고르는 거 보면 또래 애들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잠시 흔들린 적도 있었다.

저 애들을 어찌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도 참고 살아볼까?

그런데 천지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우스운 생각을 했나 싶더라.

내 새끼도 못 챙기면서 무슨...

모두 ...

현숙 부모가 똑바로 안 살면 그 업이 자식한테 간다더니...

.....너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니 아빠 그러면 안되는데.

나 한테두. 니 엄마한테두... 근데 모르더라. 뭘 잘못하는지 몰라.

미란 (씩씩하게)우리 둘이 잘하고 있어요.

미라 (현숙을 슬쩍 본다.)

현숙 알아. 오늘 보니까. 더 그래. 엄마가 참 잘 키우셨다. 자, 먹자.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현숙 미라야. 괜히 먼데까지 가지 말고 우리 마트 그냥 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나아. 피한다고 피해질 사람 없고

막는다고 막아질 사람 없어. 뭐 대단한 사람 모양 다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미우면 미운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사는 거야.

미라 (흑)

미란 (동생 본다) 왜 그래?

미라 ...아줌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울 아빤..(울먹)

미란 애가 맨날 내가 해주는 후진 밥만 먹다가...감격했나봐...야. 먹어.
남기지 말구 싹싹

미라 (끄덕) 먹는다

만지 엄마, 엄마는 남자 얼굴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엄마 어.

순간, 만지와 미란의 시선이 마주친다.

미란 저희 아빠 외모는 좀...

현숙 아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팔십년 대엔 그런 얼굴이 먹어줬어...
매력 점에 큰 얼굴..

만지, 미란 웃음이 팍 터졌는데 미라 혼자 웃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미라가 이상한 미란.

93. 초원아파트 앞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있는 현숙, 만지, 미란, 미라.

만지 자구 가라니까.

미란 아냐. 이런 거 하루 이틀두 아닌데...잘 먹었습니다!

현숙 그래. 잘 가.

미란과 미라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던 현숙과 만지가 돌아서서 길을 걸어간다.

현숙 (꺼억 거리며) 등 좀 두드려봐.

현숙의 등을 두드리는 만지. 크게 트림을 하는 현숙.

만지 아휴, 드러워. 입으로 폭죽 쏘?

현숙 아유, 좀 낮네.
만지 화요일 날 학교 올 수 있어? 진학상담한대. 안 와도 돼. 애들 무섭다며.
현숙 찢리는 거 있냐? 니 담임이 그러는 거 아냐?
 만지 머리에 는 돌이 있습니다. 서둘러 제거하심이...
만지 가서 유전이라고 꼭 밝혀.
현숙 오케이, 몇 시까지야?
만지 2시.

계속해서 걸어가는 두 사람.

현숙 근데, 너 몇 반이냐?
만지 6반.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한 동안 보여 진다.

94. 교실. 서진여중. 낮

빠른 속도로 뜨개질을 하는 미소.

그 속도에 미라를 비롯한 주변아이들이 혀를 내두른다. 잠시 후, 툭 떨어지는 실패. 리본이 묶여있다. 의아한 얼굴로 실패를 열어보는 미소. 쪽지를 읽어 본다.

미소 넌 참 밉다. 그래도 용서는 하고 갈게. 나는 가도 너는 남을 테니까.
 화연이 애, 미친 거 아냐?

코웃음을 치는 미소. 옆 자리에 있던 미라가 미소의 손에 들린 쪽지를 읽는다.
놀라는 얼굴의 미라.

미라 이거 나 가져도 돼?
미소 몰라, 짜증나! 하여간 거지 근성들은 알아줘야 돼.

쪽지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교실을 나가는 미소.

95. 교실. 서진여고. 오후

미란의 교실로 들어오는 미라. 흥분된 표정으로 미란에게 다가간다.

미라 언니, 전에 내가 줬던 털실 가지고 있어?
미란 응? 사물함에 있을 걸? 왜?
미라 천지가 화연이한테 준 털실에서 이게 나왔어.

쪽지를 읽어보는 미란. 이때, 다가오는 만지.

만지 이 자매는 학교에서도 붙어 있네.

순간, 만지가 미란의 손에 들린 편지지를 발견한다.

만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미란 화연이가 받은 털실에서 나왔대. 너도 이거 알아?
만지 알아. 화연이한테 준 걸 니가 왜 가지고 있어? 화연이 어딴?
미라 요즘 학교 잘 안 나와요.
미란 그럼 그 털실이 천지가 준 거야?

당황하는 미라.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된다.

96. 계단. 서진여중 <과거>

보조가방을 들고 계단을 급히 내려가던 천지. 미라와 부딪힌다.

미라 수행평가. 그거 선전포고지? 보기 좋게 실패했고..
천지 ...
미라 김화연한테 그제 먹히겠냐...
천지 덕분에 재미난 구경들 했잖아
미라 (어쭈. 보조가방 보더니)거기 가니?
천지 응.
미라 (끄덕끄덕) 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천지 없어. 괴롭혀서 왜냐고 물어보면 그런 적 없었다구 할 거 뻔 하잖아.
미라 물어는 봤었구나. 왜 괴롭혔냐구...아닌 척 하는 거. 정말 역겨웠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생일 때 너만 세시로 적어주는데도 딱박 딱박 세시에 와.
천지 (움찔)
미라 '울 언니'가 자기라는 거 다 알면서...맞장구쳐 줘.
천지 (노려본다.)
미라 뭘 그렇게 혼자 아닌 척. 순직한 척. 니가 더 무서웠는데... 물어는 봤구나.
천지 화연이나 너나. 누구 하나 괴롭혀야 그래야 친구가 생기는 줄
아나본데...해봐. 힘껏. 난 꿈쩍도 안 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미라 나랑 화연이랑은 다르죠... 나야 이유가 있고
 겐? 그냥...겐...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는 애야...

천지 ...

미라 (무심코 말해놓고 아니다 싶었는지 괜히) 털실 색 좀 바꿔라.
 맨날 그 색이야...(걸어가는 미라)

천지 너.

미라 (멈춰서 돌아본다. 천지의 등)...

천지 너는 무슨 구경이 하고 싶은 거니?

cut to

혼자 감자칩 먹는 천지. 바닥에 놓여있는 보조가방과 붉은 털실.
 웅성거리는 운동장이 비밀스럽게 보인다.
 먹다보니. 감자칩 하나가 뜯어져있다.
 고양이 한마리가 그 곳으로 오려다가 천지 눈치를 본다.
 천지. 먹던 감자칩을 바닥에 뿌려놓는다.
 고양이가 와서 먹는다.
 수업종소리가 들리자 얼른 보조가방, 붉은 털실을 챙겨서 일어난다.

97. 옥상. 서진여고 <현재>

옥상에 서있는 만지, 미란, 미라. 바닥에 풀어진 털실이 수북이 쌓여있고 미란이 쪽지를 들고 있다. 쪽지를 펴는 미란. 말리는 만지.

만지 안 돼. 미라가 풀어. 천지가 미라한테 줬잖아.

미란이 미라에게 쪽지를 넘긴다. 손이 떨리는 미라.

미라 언니, 답에 읽자. 응? 답에.

그런 미라를 쳐다보는 만지와 미란.

미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니까.

미란 펴 봐!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는 미라.

천지 (소리) 알아도 가슴에 담을 수 없었을까?
가끔은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가슴에 너무 깊이 꽂혔어.
그래도 용서하고 갈게. 처음 본 네 웃음을 기억하니까
다섯 개 봉인실중 네 번째>
미란 (찰싹! 미라의 뺨을 때린다) 도대체 천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라 왜 때려! 쪽 잘 해줬단 말야. 쪽.
애들이 은근 따 시키는 거 알면서두 눈감아 준건 나뿐이야!
그런데 아빠하고 천지엄마하고 있는 거 본 뒤루...지가 뭘데 날 용서해!
지가 뭘데!
(엉엉 운다)
미란 너 미쳤어! 니 아빠가 엄마 죽으니까 정신 차리대!
왜 아빠 일을!...(하는데)..
만지 닥쳐! (부들부들 떨며) 너 천지 갖고 놀았니?
미라 그게...아니구...미안해요...엉엉...
미란 그만해.
미라 언니..
만지 (싸늘) 천지 갖고 놀았냐구!
미란 (차갑게) 만지... 너 그만해
만지 !?
미란 그나마 잘해준 게 미라 였다잖아. 그러다 아빠랑 니 엄마 만나는 거 보고
화좀 냈대. 한번 싸운 거 가지구...그렇다고..
만지 ...
미란 그렇다고...죽어?
만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다)
미란 (눈물이 쏟아진다) 미안.. 니 심정... 알아. 아는데...
앞으로 동생일루.. 할 말 있음 나한테 해. 미라한테 욕박지르지 마.
..... 미라야 가자.

미란이 엉엉 우는 미라를 데리고 옥상을 빠져나간다. 망연자실 혼자 남은 만지.

98. 학교 앞. 낮

교문 앞에서 망설이는 현숙. 발을 내딛는다.

천지와 같은 1학년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자 다시 돌아선다. 들어가지 못하겠다.
심호흡하고 다시 돌아선다.
운동장을 가로지른다. 일부러 중학교운동장으로 들어선다.
아이들 속을 헤집고 고등학교 건물로 향한다.

99. 만지 교실 앞. 서진여고. 오후

수업중인 만지 교실.
만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미란이 보인다.
하지만 만지. 눈을 감고 앉아있다.
힘들게 눈을 뜨는 만지.
그런데. 창가에 현숙이 보인다.
만지를 죽 보고 있던 것. 손 흔드는 현숙,

만지 (놀라서 현숙을 뻔히 보더니 먼저 ‘괜찮아?’하는 입모양)
현숙 (‘괜찮아’. 하는 입모양. ‘너는?’)
만지 (끄덕. 눈물이 날 듯. 참는다)
현숙 (눈물이 날 것 같다. 참으며 미소 ‘공부해!’)
만지 (끄덕. 칠판 본다. 눈에서 레이저 나올 듯 집중)
현숙 (피식. 자리를 뜬다)
만지 (입술을 깨문다)

운동장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만지. 잠시 후, 주머니에서 화연이 받은
쪽지를 꺼낸다. 그 위로 들리는 미라의 소리.

미라(소리) 요즘 학교 잘 안 나와요.

죽을힘을 다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판서하는 선생님을 뒤로 나가던 만지,
미란, 눈물이 터져 계속 울고 있다.
만지가 그런 미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 얼굴을 본다

만지 ...
미란 ... (더 눈물이 난다)

교실 뒷문으로 가만히 나가는 만지. 그걸 쳐다보는 미란.

100. 교무실. 오후

만지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는 현숙.

담임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연락 드렸어요
 원래 만지가 취업반으로 옮기 겠다구 대학 완전 접었었거든요
현숙 (놀람) 대학 안 간다구요?
담임 그러다가 동생 그 일 있고 나서...
 문과로 가겠다고 다시 애길 바꾸더라구요. 좋은 대학 꼭 가고 싶대요.
현숙 (뭔가 몽클)
담임 만지 성적이면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자료 보여준다)
 제가 준비한 건데..
현숙 네. (의자 바짝 책상에 끌어 앉는다)

101. 길거리. 초원아파트. 오후

초원아파트의 진입로를 걸어가는 만지. 메시지가 울린다.

현숙 (메시지)엄마 상담 다 끝났어. 먼저 간다.
만지 (메시지) 그래, 조심해서 가.

멈춰 서서 보신각을 올려다보는 만지. 다시 울리는 메시지.

현숙 (메시지) 너, 수업 중이지? 수업 중에 카톡 하니까 재밌다. ㅋㅋㅋ
만지 (메시지) 엄마.
현숙 (메시지) 왜?

102. 운동장. 낮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서있는 현숙. 메시지가 울린다.

만지 (메세지) 천지는 혼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혹 한숨을 내쉬며 구렁대에 걸터앉은 현숙.

촉촉한 얼굴로 운동장을 보는데 몇 몇의 학생들이 까르르 거리며 뛰어놀고 있다.

현숙 참, 예쁘다. 니들은 제발 미리 죽지마라.

103. 초원아파트. 오후

초원아파트를 올라다보고 있는 만지. 핸드폰의 연락처를 검색하다가 화연에서 멈춘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화연 집의 문이 열리며 화연이 나오는 게 보인다. 목직한 가방을 메고 내려오는 화연. 아파트 정문을 나오는 화연에게 다가가려는 만지. 순간, 화연이 뭔가 경계를 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본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만지. 초원아파트 진입로를 내려가는 화연. 그 뒤를 따라가는 만지.

cut to

한 건물 앞을 지나던 화연이 입구에 놓인 빈 그릇을 보고 다가간다. 남아있는 음식쓰레기를 바닥에 뿌리고는 빈 그릇을 다시 배낭에 담는다. 이내 거리를 내려가는 화연.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만지.

cut to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화연.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가는 만지.

cut to

플랫폼에 서서 핸드폰 통화 중인 화연. 자판기 뒤쪽에 몸을 숨기고 있는 만지.

화연 초원아파트 앞에 있는 보신각 말야. 밀가루 유통기한 지난 거 쓰다가 걸렸대.
 나도 저 번에 보신각에서 시켜먹고 배탈 났어.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이 화연을 쳐다본다. 이내, 지하철이 들어오자 올라타는 화연. 만지는 그 옆 칸으로 올라탄다. 문 앞에 서서 건너편의 화연을 살피는 만지. 컷, 컷 되면서 몇 개의 역을 지나간다. 다시 멈춘 역에서 지하철을 내리는 화연. 따라 내리는 만지.

cut to

지하철을 올라온 화연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상가 뒤로 돌아간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만지.

cut to

상가 뒤를 돌아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는 화연. 가방에서 두툼한 비닐봉투를 꺼내서 바닥에 놓는다.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만지(소리) 멀리도 왔다.

놀라서 돌아보는 화연. 뒤에 서있는 만지를 확인하고 뭘 일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만지 그거 뭐야?
화연 우리 거예요.
만지 너네 거?

만지가 비닐 봉투를 찢는다. 보신각의 접시와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군다.

화연 상관 마세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만지 그래, 이걸 너네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네 집 일.
 니 부모 괴롭히면 화가 풀리냐! 넌 왜 누구 하나 괴롭혀야 사니!
화연 이래야, 이사를 가지! 보신각이 망해야 가죠!

만지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화연의 가슴을 강하게 친다. 벽에 등을 부딪치는 화연. 아픔에 가슴을 부여잡는다.

화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구요. 왜!
만지 왜? 남들은 왜인지 다 알 거다, 쌍년아.

화연을 두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만지. 그런 만지를 쳐다보는 화연의 얼굴.

104. 지하철.

플랫폼에 서있는 만지. 몇 대의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계속 서있다. 다시 계단을 오르는 만지.

105. 상가건물 뒤.

화단 위에 앉아있는 화연. 그 앞으로 다가가는 만지.

만지 가자.

만지를 올려다보는 화연.

화연 언니…….
만지 밤중에 이런 데 혼자 있으면 위험해.

화연 잘못했어요.
만지 알아.
화연 저는요, 천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만지 그럼 그냥 ‘나 너랑 안 놀아.’ 하면 됐잖아.
화연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요…….
만지 너 말 참 우아하게 한다. 불쌍해서 못 했다고? 말은 못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했니? 천지가 떠날 정도로 지독하게? 그냥 조금 더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그게 니 진심 아냐?
화연 천지가 그 정도일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똑똑했잖아요.
만지 나도 니가 그 정도일 줄 몰랐다. 너무 천진했잖아.
화연 근데, 왜 제 뒤를 따라 왔어요?
만지 천지를 돌아오게 할 순 없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찾아내야지. 분명히 말하는데 천지 그렇게 보낸 사람, 너하고 나야. 우린 끝까지 미안해해야 돼.

말이 없는 화연.

만지 앞으로는 사람 가지고 놀지 마. 니가 양손에 아무리 근사한 떡을 쥐고 있어도, 그 떡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너 별거 아냐. 별거 아닌 떡 쥐고 우쭐해하지 마. 웃기니까.
화연 그럼, 언니는요?
만지 너.
화연 저요?
만지 그래, 너. 니가 지쳐서 천지 따라가지 않게 지켜야지. 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냐. 내 동생이 죽어서까지 ‘천지 때문에’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마지막 털실 뭉치를 찾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화연. 만지가 편지를 건넨다.

만지 천지가 너한테 남긴 거다.

편지를 건네받는 화연.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천지(소리) 그래도 용서는 하고 갈게. 나는 가도 너는 남을 테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기를. 이제는 너도 힘들어 하지 말기를.

눈물이 멈추지 않는 화연의 얼굴. 만지를 쳐다보는 화연.

만지 너 죽으면 나도 따라갈 거야. 그럼 거기서는 2:1 이야.
나하고 천지가 당연히 한 편. 그리고 너는 혼자. 그러니까 죽지 마.
나중에 저절로 가게 되면, 너 그동안 잘했다고 말해줄게.
천지가 내 말은 잘 듣거든. 얼른 일어나, 집에 가게.

화연 정말 잘했다고 말해줄 거죠? 거짓말 아니죠?
만지 거짓말, 아냐.

화단에서 일어나는 화연. 화연을 쳐다보는 만지의 얼굴.

106. 구령대. 오후

멍하니 앉아있던 현숙이 가방에서 천지의 쪽지를 꺼낸다.

현숙 먼저 가서 미안해요.
천지 (소리)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래도 씹씹하게 잘 지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속상하니까. 사랑해요. 엄마.
현숙 나두.. 사랑해...(가슴을 친다)

107. 지하철 안. 오후

탈진 상태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잠이 든 만지와 화연.

108. 운동장. 서진여중. 늦은 오후 (만지의 꿈)

-달려가는 천지. (썸1의 상황)
손에 들고 있는 보조가방에서 붉은 털실이 떨어지자
주저앉아 정신없이 줍다가 동작이 멈춘다.
그 때서야 터지는 운동장의 활기찬 소음.
햇살. 생기 넘치는 운동장. 싱그러움. 그 모든 것을 생경하게 보는 천지의 얼굴.
울고 있다.

109. 현숙집. 다세대연립

천장에 길게 매달린 붉은 털실 목도리를 보는 천지.
그 때 따르릉. 벨소리가 울린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천지.

천지 언니..?

세 번 울린다.
정적.

창문으로 노을이 가로질러 들어온다.
노을 끝에 가족사진이 닿는다.
그 중 눈에 들어오는 아빠의 미소.
천지, 얼굴이 편해진다.

천지 아빠...

노을이 방안으로 쏟아진다.

110. 거리. 다세대연립 계단. 해질 무렵

-달리는 만지
-거리를 뛰는 현숙. 여기저기 부딪히는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뛰는 현숙.
-계단을 올라가는 현숙.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만지

111. 현숙집. 다세대연립. 해질 무렵

문을 벌컥 여는 현숙.

현숙 멈춰!
천지 (의자위에 서 있다가. 돌아본다.)
현숙 (얼른 천지를 끌어내린다) 천지야!

동시에 집으로 뛰어 들어 오는 만지.

천지 엄마...언니.
현숙 (천지. 만지를 끌어안는다) 잘했다. 내 딸.
 잘 기다렸어. 잘 참아줘서 고맙다.
천지 아빠 보고 싶어.
현숙 그래 보러가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지 엄마 미안해..
현숙 아냐. 아냐. (천지 끌어안는다)
천지 언니 미안해 (천지가 활짝 웃는다)
만지 (울면서 천지 머리 쓰다듬는다) 아냐. 이젠 됐어. 이젠 됐어..다 됐어.

셋이 끌어안는다. 노을 속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112. 초원 아파트 앞. 해질 무렵

만지가 현숙을 기다리고 있다.

현숙 (방긋)엄마 기다렸져?

만지 (돌아서 간다)

현숙 (방긋) 힘들다..나 좀 업어줘라.

만지 (멈춰 선다.)

현숙 업어 줄 꺼야? 아 좋아라. (신나하더니 불쑥 멈춰 선다) 니가 와.

만지 (어이없다. 다시 돌아서간다)

현숙 저 매정한 기지배. 오라니까 가. 멈춰 서 스톱. 스톱!

만지 내 정말 창피해서 선다.

보다가 엄마에게 다가가는 만지. 현숙 두 팔을 벌린다.

만지 오바 하면 안 간다!

현숙 (팔 내کم 내린다)

가까이 와 마주보는 둘.

현숙, 만지를 어루만져준다.

만지 업혀. (등을 내밀면)

현숙 어색한데...

만지 싫음 말구 (하는데 확 하고 업히는 현숙.)

집을 향해 가는 현숙과 만지.

만지 엄마. 꿈에 천지 나왔어..

현숙 웃고 있니?

만지 응. 아주 활짝. 우리가 천지 안아줬어..

현숙 잘 있나보네. 다행이다.

113. 베란다. 현숙집. 초원아파트

베란다에 사포질하다만 낡은 천지의 책상이 놓여있다.
그 위에 천지와 만지. 엄마가 천지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올린다.
사진속의 만지는 어색한지 떨어져서 인상 쓰고 있고,
현숙은 코트주머니에 마트 앞치마 꾸겨 넣은 채 지쳐 보인다.
큰 교복 입은 천지만 가운데서 빈약한 꽃다발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만지. 액자의 위치를 잡고

만지 리폼 끝.

F.O

114. 시립도서관. 낮.

서서히 화면 밝아지며.. 창으로 흰 눈 내리는 겨울.
책장 사이를 걸어가는 소녀의 뒷모습.
발을 멈추고 후... 하고 호흡을 내뿜는 소녀, “우울증 극복하기” 책을 꺼내는 손.
책과 책 사이. 저 뒤로 붉은 실 뭉치가 보인다.
붉은 털실에 서서히 밝은 햇빛이 닿는다... 카메라 천천히 들어가며...

천지 e잘 지내고 있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2학년에 좋은 친구 만난거지? 좋다.
고마워.... 약속대로 잘 견뎌줘서.

천천히 화면 어두워진다.